

OCCUPY MONEY

화폐를 점령하라

99%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마르그리트 케네디 지음 황윤희 옮김



아포리아

아포리아는 사람의 길을 찾기 위한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의 인문 브랜드입니다.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면서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화폐를 점령하라

초판 1쇄 인쇄 2013년 7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8월 1일

지은이 마르그리트 케네디
옮긴이 황윤희

책임편집 인현진
책임디자인 유영준

펴낸이 이상순
주 간 서인환
편집장 박윤주
기획전략팀 인현진
기획편집 유명화, 김초희, 주리아, 김설아
디자인 최성경, 박희정
마케팅 홍보 김미숙, 이상광, 김종열, 권장규, 박순주

펴낸곳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주소 (413-756)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03
대표전화 031-955-1001 팩스 031-955-1083
이메일 books777@naver.com
홈페이지 www.books114.net

OCCUPY MONEY. Damit wir zukünftig alle Gewinner sind by Margrit Kennedy
© 2012 jkamphausen, part of J. Kamphausen Distribution und Verlag GmbH, Bielefeld, Germany,
3rd edition
First published as OCCUPY MONEY in Germany in 2011
by jkamphausen, part of J. Kamphausen Distribution und Verlag GmbH, Bielefeld, German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3 beautiful peoples
Published by arrangement through The Wittmann Agency, Lutherstadt Wittenberg & Orange
Agency,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오렌지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자와 독점 계약한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이
소유합니다. 신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 전자출판 등을 금합니다.

OCCUPY MONEY

화폐를 점령하라.

99%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마르그리트 케네디 지음 황윤희 옮김



아포리아



“

화폐가 세계를 진정으로 이롭게 할 날을 기대한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전에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화폐를 무해한 상태로 복귀시켜야만 한다. 화폐의 초기 목적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익을 만들고, 가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화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 생물종, 생명체 등 각각의 복지가 만족되어야 지구 전체의 복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화폐는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화폐 점령 운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찰스 아이젠스타인 Charles Eisenstein



“

마르그리트의 『화폐를 점령하라』는 갇아도 끝없이 몰려오는 채무 쓰나미 속으로 가
라앉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이다. 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탄력적인 경제
를 재건하여 우리에게 행복과 안녕을 보장할 것이다. 마르그리트는 그녀만의 쉬운
필체로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대안 화폐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현재의 사
채-채무-화폐 시스템을 대체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경제의 봄을
피우기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

마크 아니엘스키 Mark Anielski



차례

추천의 글 : 화폐를 점령하라	14
프롤로그 :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매체는 화폐	22

1부 : 화폐 불평등의 진실 30

성장에 병든 시스템	38
자산 = 부채, 빛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46
이자의 진실, 우리는 빛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한다	51
부익부 빈익빈	52
화폐 가치의 날개 없는 추락	56
글로벌 카지노	58
생각의 감옥	61

2부 : 어떻게 화폐를 점령할 것인가 64

무이자 대출	68
이자 대신 디머리지	79
역사에서 찾은 해결책	84
확실성을 이기는 다양성	88
투명한 은행과 윤리적 투자	91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 화폐	93
시간 은행	95
비용 화폐	96
지역 화폐	100
새로운 개념의 대안 화폐	113
교육 화폐	113
건강 화폐	118
글로벌 기준 화폐	120
탄소 화폐	123
법률 : 제도적 속박	125

3부 :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으로 수익 기반의 전환 128

자발적 지지 134

마법의 공식 : 작은 조직 135

지속 가능한 새로운 화폐 137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의 장점 139

감사의 글 145

색인 148

“화폐를 점령하라”

나는 이 책을 금융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서게 함의를 해낸 세계 곳곳의 “정형 운동”의 선구자들과 오랜 시위 끝에 새로운 헌법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아이슬란드 시민들에게 바친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신흥국들이 책임감 있는 화폐의 기초를 다져 2007년 금융 내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 내부 분열과 사망률 증가, 황폐화되는 토양, 화폐 가치의 하락은 세상의 종말을 야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폐해이다. 특히 사람들은 앞의 세 가지 폐해를 두려워하며 맞서 저항하려 한다. 하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은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 화폐의 타고난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화폐는 조금씩 가치를 잃어, 어느 순간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른다.

『화폐의 본성(1526)』에서 니콜라우스 코르넬루스, 1473-1543



추천의 글 :

화폐를 점령하라

‘화폐 점령’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에서 월가 점령 시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화폐 점령과 월가 점령 시위는 두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시위의 발화점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부의 격차와 채무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화폐 점령’은 두 가지 문제를 전면에 다루었다. 그런데 ‘점령’은? 누군가가 사회적 공동 영역을 자발적으로 ‘점령’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시위의 ‘점령’은 소수가 독점하는 무언가를 다수에게 되찾아 주겠다는 의미를 상징했다. 그러므로 두 시위는 ‘점령’을 수행하였다 기보다 “이 나라는 모두를 위하여”라는 명제를 선언한 것이다.

모두를 위하는 화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화폐가 노력이나 능력,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향한 사람들의 의심은 확산되고 있다. 일생을 일하고 은퇴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귀퉁이가 한 뭉치 떨어져나간 연금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 없는 시장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계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어쩌면 몇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론이나 예측대로라면 모두가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부를 소유한 계층의 몫으로 국한되었다.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긍정적인 면을 지녔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당한 결과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에 속한 사회, 자연, 문화와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마땅하다. 인간은 그 누구도 에디슨이 이룩한 발명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지구상의 물과 흙, 숲, 생명체의 혜택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사회는 물려받은 빈곤이나 불안한 생활, 빈약한 여건 등에 의해 더욱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불공평한 부의 분배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스템을 착실히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따라온 시스템의 주요 매체는 무엇일까? 바로 화폐이다.

화폐를 점령하자. 그리고 터무니없는 부의 분배 방식을 개혁하자. 이것은 부를 지닌 자들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압수하는 뜻이 아니다. 시스템을 왜곡시킨 사회적 합의를 변경하여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는 항의할 것이다. “토지는 태초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속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화폐의 경우는 달라야 합니다. 화폐는 인간의 창조물이예요. 인간이 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화폐는 본질적으로 사유재인데 공공의 권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화폐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창조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합의는 화폐 발행자와 수반되어야 할 조건들을 결정한다. 하지만 마르그리트 케네디(Margrit Kennedy)는 현 시스템하의 은행은 대출자에게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갚으라고 요구한다며 합의의 부조리함을 지적했다. 그녀는 합의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심지어 현대 사회가 겪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합의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화폐를 점령하면 민간 은행이 갖는 신용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화폐 발행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점된 사적 이익을 다시 '점령'하여 모두에게 분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점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마르그리트는 그 해결책으로 신용 조합과 JAK은행,

P2P 신용, 공공 은행, 상호 신용, 대안 화폐에 이르기까지 최근 대두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한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에게 부를 편중시킨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리는 이자 시스템이다.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소수층의 부자들은 더욱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 이자 시스템은 역사에서 축적되어온 경제 불평등 이념에 사로잡혀 계층 간의 구별을 영구화한다. 이자 원리는 만유 우주의 법칙이 아니다. 정치적 또는 법적 기관을 통하여 공인된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민주의 경제 정책이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이자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확장 재정정책을 제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민주의는 부의 공평한 분배를 방해하던 이자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고 뒤따르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점령'운동의 핵심 쟁점이다.

기존 이자 시스템이 드러내는 부작용은 화폐 사용에 대해 무조건 대가를 요구하는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JAK은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무이자 은행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폐 시스템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혁신은 기존 화폐 시스템이 변화를 깊숙하게 수용하기 전까지 마치 조류에 반하는 역류와 같이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디머리지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선박의 초과 정박 운임인 디머리지는 본

래 초과 정박이나 저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그 태생 자체가 유해한 이자의 효과를 반전시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나의 견해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 마르그리트와 차이가 조금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움직임에 주도하며 친환경적이고, 공정하며, 쉬우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가 난항을 겪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는 도전과 실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월가 점령 운동은 경제 권력이 주요 요지에서 월가로 집중되는 현상에 반대하고 익명의 추상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과 개인, 물질이 상실을 겪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월가 점령 운동의 또 다른 동기였다. 즉, 그들이 점령한 곳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고 실제 물리적 공간이었다. 오늘날 경제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과 맺어진다. 누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재료를 재배하였는지, 혹은 입을 옷을 디자인하였는지, 따라 부르고 싶은 유행가를 작곡하였는지, 거주하는 집을 지었는지, 사용하는 휴대폰을 제조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효과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추상적이고 익명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영계 보이는 영역에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대일 교환 관계가 실현되는 공평한 경제적 삶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한 가지 해결책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지역화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시간 은행, 병용 화폐, 지역 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을 지닌 계층이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화폐를 모두의 것으로 탈환하지는 맥락에서 화폐 점령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화폐는 인간의 선택에 반하고, 나누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에 역행하고, 탐욕을 부추기고, 악한 경향을 조장하기 때문에 낯설다. 화폐는 호혜, 상부상조, 전통적인 관계에 녹아 있던 정 등을 없애고 모두를 병적인 성장 궤도에 가두었다. 아마도 이러한 화폐의 성격은 인류가 자연을 정복해야만 자유가 보장되는 낙원을 찾던 때에는 적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오늘날 화폐는 부자들에게만 보상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다수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한 화폐의 시스템을 중단하길 원한다.

화폐가 세계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할 날을 기대한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전에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화폐를 무해한 상태로 복귀시켜야만 한다. 화폐의 초기 목적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익을 만들고, 가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화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 생물종,

생명체 등 각각의 복지가 만족되어야 지구 전체의 복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화폐는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화폐 점령 운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찰스 아이젠스타인[■] Charles Eisenstein

■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자칭 탈성장주의자(Degrowth Activist)로서 화폐의 탈기능에 의한 문명의 위기를 지적하는 경제학자이자 연설가이다. 그는 2011년에 발표한 『신성한 경제(Sacred Economics)』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성한 경제』는 소외, 경쟁, 파괴를 야기하는 현대 자본주의로부터 화폐의 역사를 추적한다.



프롤로그 :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매체는 화폐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 요즈음 이보다 더 절대적인 원리가 또 있겠는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고개를 내저으며 사람이 돈을 움직인다고 고집하지만 우리는 최근 수차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돈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에게 금융 통화 위기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난 국가 수준의 금융 위기는 124회, 통화 위기는 326회, 공공 부채 위기는 64회였다. 게다가 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파급되기 십상이며, 그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세계는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대명사인 투자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평가 기관이 증권거래소에서 돈의 가치를 취약파락하도록 수수방관한다. 우리는 정녕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과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일까?

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화폐 시스템 구조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복리 이자에 있었다. 생태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나는 규모가 꽤 큰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었고, 막대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보았지만 상황은 줄곧 진퇴양난이었다. 기존 화폐 제도 하에서 자금 확보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이자 제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시도되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화폐 제도의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6개월을 거듭한 끝에 처음 내 직관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5년이 지나고 나는 이 짧은 책을 스물세 개의 다른 언어로 세상에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대안 화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도산하고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무렵이었으며 내가 대안 화폐를 알리기 위해 글을 기고하고 강연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후였다. 인터뷰 요

칭이 끊이지 않았고 현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듯했다.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진리라고 신봉하였던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화폐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꼬집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채와 부실 금융 상품은 끊임없이 누적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웃집 애완견 이름을 부르듯이 너무나도 쉽게 조, 천 조를 말한다. 십 억은 종잇조각 취급이다. 통계에 따르면, 복합 금융 상품에 투자된 돈이 자그마치 601조 달러로 집계된다고 한다. 601조이다. 얼마인지 감이 오는가?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 주요 은행들을 도산으로부터 구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금융 구제는 붕괴를 조금 미루는 값비싼 궁여지책에 불과했다. 문제의 근원인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붕괴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정부의 규제는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알면 알수록 금융 시스템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간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맞았다. "금융 시스템의 결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셨군요. 학계에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에서 그

것을 실행할 능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훨씬 나중에야 내가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칙, 즉 이자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 이론에서 이자는 마치 페러다임 같은 것이다. 이자는 경제학에 입문하는 햇병아리 학생에서부터 원로 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 모델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그 누구도 이자 시스템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나는 사회외교학을 공부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의 교리와도 같은 이자 시스템에 대담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배우고 경험한 사회 외교학의 렌즈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화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택하겠는가? 하나는 내가 투자한 돈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배불리지 않는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투기로 누군가는 이득을 챙기고 동시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며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붕괴하는 파괴적인 시스템이다.

만약 첫 번째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이 책은 이미 당신을 위한 것이다. 나는 큰 변화는 소수의 몇몇 전문가가 아닌 무게 있는 물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수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풀어냈다. 월가 운동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몇몇이 모여 월가 금융 전문가

들에게 최근 위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깨우쳐주려는 자그마한 시위였지만 다수가 참여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비폭력적 월가 운동의 시위 참가자들은 주식 투자를 조작하여 일반인을 우롱한 전문 투기자(경제학자를 포함한)와 대형 은행 최고 경영자에게 항의하였다. 금융 전문가와 은행 관계자들은 난해한 전문용어와 수학 공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꾸며 경제 문외한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포장했다. 이것은 정보를 더 많이 쥐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게임 이론에 맞아떨어져, 그들이 금융 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치장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거둔 이익의 반대급부로 평범한 대다수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

전 세계로 퍼진 월가 운동 참가자들은 20여 만 명의 남자(중권기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다)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대략 스물다섯 살에서 마흔 사이의 그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 정세를 분 단위로 분석하는 그들. 머릿 속 한 칸에는 통화 시장에서 가격 변동량이 적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슈퍼 금융맨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한 그들. 성공만 하면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아 축배를 들 것이다. 그들은 하루에 자그마치 미화 4.5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굴리며 이익을 챙기지만 그 돈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적당한 통화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 무자비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레이더

망에 잡힌 통화는 철저히 희생양이 되고 그 통화를 보유한 나라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나는 화폐 시스템에 관한 비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의 첫 장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올바른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 개선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뿐더러 다같이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야만 이 변화를 겨우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최근 사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 10퍼센트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나머지 90퍼센트는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세상은 변화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복리 이자로 인하여 붕괴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연적인 결과를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신이 기존 화폐 시스템을 더 이상 축복(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 로이드 블랭크핀인Lloyd Blankfein이 자신들은 '신'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주장할지라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전 세계를 둘러보자. 대도시에 높이 솟은 빌딩은 콧대 높은 은행들의 차지이다. 중세의 교회가 현대 사회에 환생한 듯한 느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은행은 마치 중세의 조물주 같다. 화폐를 발행하고 발행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오테Max Ote는 이러한 경제 현상

을 일컬어 '금융맨들을 위한 사회 복지정책'이라 칭했다. 그는 현 금융 시스템에서 투자은행들은 조작과 투기를 일삼더라도 쉽사리 면책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은행과 금융 브로커, 슈퍼 부자들은 실적이 낮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질서의 부조리함을 꼬집었다.

금융 시스템은 신이 만든 산물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탐욕스러운 은행들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지한 채로 위축되어 안락함만 좇는다면 우리 역시 다가오는 금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긴 터널에서 나와 경제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 두려움을 떨쳐 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자'로 돈 좀 벌어보자는 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은행이나 연금펀드가 보장하는 '최고 수익률'을 단칼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강의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돈을 주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고 화폐 시스템 개혁은 마치 달나라 저편 유토피아의 이야기이다. 독일은 1948년에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화에서 독일 마르크(Deutsche Mark)화로, 2002년에는 유로화로 통화를 완전히 변경하였다. 통화 변경을 두 차례나 경험한 나로서는 화폐 시스템 개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이 책에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걸친 사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책은 단지 화폐 시스템에 얽힌 비난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참신한 화폐 개념을 해결책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화폐는 수익률만 올리는 데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배불리지 않는다. 소수 부자 계층이 축적한 돈을 성실하게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 계층에게 골고루 배분해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잠에서 깨어나자! 기존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했던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 결함을 수정해나갈 수 있을까?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부

OCCUPY MONEY

화폐 불평등의 진실



화폐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조개껍데기, 곡물, 동전, 지폐, 전자 화폐 등으로 오랜 역사와 함께 외형상 형태를 진화하였다. 화폐는 사유재로서 가치 저장의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그리고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로서 교통수단이나 전기, 인터넷과 같은 공공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매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이라는 공통 척도로 표시하여 매매와 교환 과정에서 등가 관계를 알려주는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성립되었고 이 때문에 시장은 다양한 범위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화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 채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교과서에 이미 기록된 구태의연한 기능 외에 창조적인 기능을 잃게 된 것이다.

독일연방은행은 화폐 기능 상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흔히 화폐 발행은 '통화 창출', 반대어는 '통화 폐위'라 불린다. 두 가지 모두 중앙은행만이 결정권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일반은행은 수표만 발행할 수 있고 중앙은행만 유일하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화폐만 합법적으로 통용된다. 게다가 유로 통화 시스템은 통화 정책을 이용하여 일반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통제하니 화폐의 기능은 더 구속될 수밖에 없다.

연방은행 말만 듣자면 중앙은행은 통화 시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지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순환되는 돈의 대부분은 상업은행이 대출 형태로 발행하는 것들이다. 대출은 중앙은행의 예치금이나 고객들이 상업은행에 예금한 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금을 한 은행 고객들은 돈을 빌려준 셈이므로 대출한 사람들이 지급하는 이자를 통하여 보상받는다. 가령 이자가 8퍼센트인 경우를 통해 이자의 구성을 나누어 보면 간단하게 다음 네 가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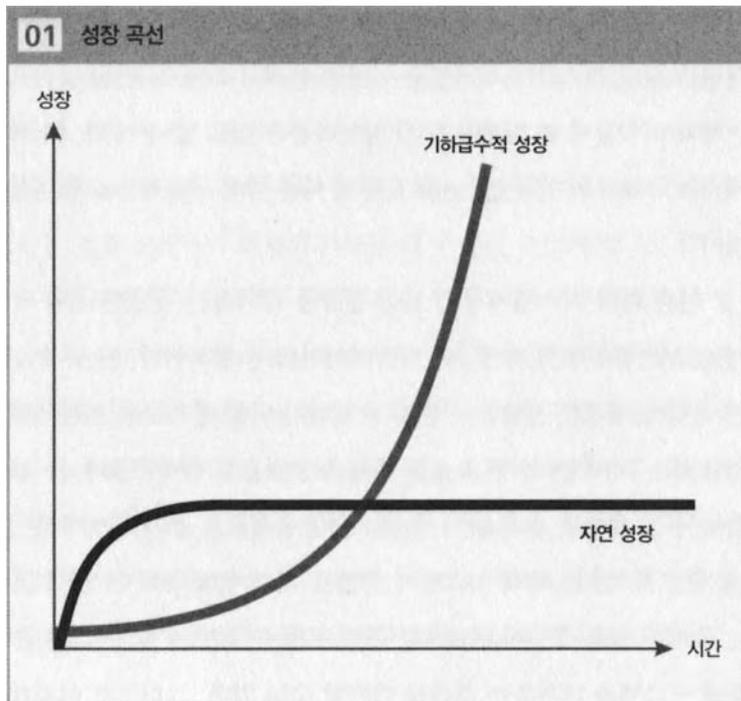
1. 은행 서비스 수수료(1.7%)
2. 리스크 프리미엄(0.8%)
3. 유동성 프리미엄(4.0%)
4. 인플레이션 오프셋(1.5%)

이자를 분석하는 것이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겠지만 각각의 비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 은행이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행원의 서비스, 부채에 대해 법이 지정한 비용, 인프라에 쓰이는 비용)을 골라낼 수 있다. 대출에 대한 보험인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자 비용에서 삭제 될 만한 것이고 은행의 이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의 이자 없는 JAK은행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 구조적 결함을 야기하는 주요한 이자 구성 요소는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조정 항목이다. 이 두 요소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지금부터 언급되는 "이자"는 이 두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 두 요소는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인데, 단기적으로는 화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화폐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화폐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자연의 만물은 최적의 크기에 도달하면 성장을 멈춘다. 이는 자연의 원리이다. 나무, 동물, 그리고 사람도 그 원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성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에는 곡선이 무섭게 상승하지만 점차 성장 속도가 줄어들어 이상적인 크기에 도달하면 곡선은 수평을 그리다가 상승을 멈춘다. 인간의 경우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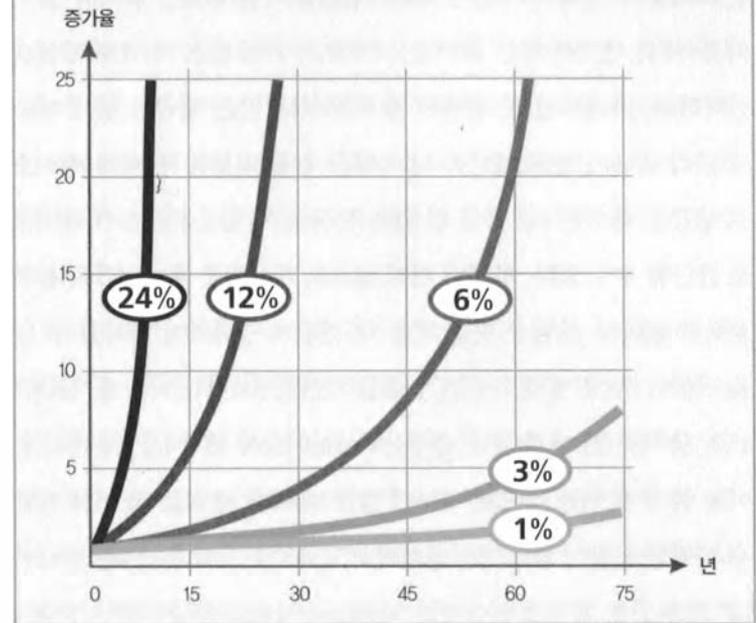
균 21세이다. 이와 같이 대자연에서 영원히 성장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성장 곡선 패턴은 각각의 유전자에 저장되어 절대적인 성장 곡선 유형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지구상의 절대적인 성장 곡선이 인간이 창조한 화폐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존 화폐 시스템은 성장 곡선을 벗어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성장에 병든 시스템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화폐 시스템은 자연 유기체가 아니다. 인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체계이다. 따라서 창조주인 인간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바꿀 수 있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자연 성장 곡선에서 벗어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성장 곡선 초기에는 느리게 상승했지만 복리 이자로 성장 속도가 점차 빨라져 곡선 후반에 다다르면 거의 수직 형태를 보인다. 이런 변형 성장을 갖는 자연 유기체는 결국 파괴된다. 동일한 결론이 화폐 시스템에서도 예견된다. 복리 이자에 기반한 금융자산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두 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붕괴할 것이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붕괴는 더 빨리 될 것이다.

연 1퍼센트의 복리를 가정하면 자산은 72년 만에 두 배가 된다. 3퍼센트하에서는 24년, 6퍼센트하에서는 12년, 12퍼센트하에서는 6년, 그리고 24퍼센트하에서는 고작 3년으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자산 증가율에 해당하는 기간은 단축된다. 똑같은 원리를 국가 경제에 적용하면, 독일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금융자산은 수십 년이 걸려 성장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

02 이자율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율



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이르기도 하는 라틴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금융자산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통화 붕괴를 더 자주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 수반하는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상할 수조차 없다. 간단한 예가 이를 증명한다. 만약 당신이 다음에 주어지는 두 임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첫 번째는 1년 동안 매주 1만

달러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1년 동안 첫 번째 주에는 1센트를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두 배인 2센트를 다음 주에는 그 전주 금액의 두 배를 연이어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임금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지 머리 속에서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몇몇은 두 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면 1년 동안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리 속으로 계산기를 재빠르게 두들겨 보아도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 연간 임금을 계산하면 1년간 받는 총 임금은 45조 달러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한 주당 받는 돈으로 나누면 평균 9,000억 달러로 첫 번째 임금을 선택한 사람이 받는 1만 달러에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월급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복리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두 번째 임금에서 복리를 계산하지 않고 주당 1센트만 추가할 경우 연간 받는 월급은 고작 52센트에 그친다.

화폐 시스템은 위와 같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는 복리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화폐 시스템은 폭발적 성장 끝에 붕괴에 이르는 성장 곡선의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성장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암세포이다.

이자란 돈에 대한 가격이다. 즉, 시장은 이자를 기준으로 '수익

성'의 높고 낮음을 가늠한다. 가령 투자 수익이 은행 금리보다 높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더 빠른 성장에 목을 매며 서로를 쥐어뜯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회사도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율보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를 지속하다가 대출 이자에 밀려 회사 문을 닫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 성장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영역이 딱 한 군데 있기는 하다. 바로 질적인 성장 영역인데 지적 성장과 기술 성장이 그 예일 것이다. 이 영역에서의 성장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다방면에서 우리 삶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인 성장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 질병과 부패의 징조이다. 우리는 물질 성장과 실적 위주 성장 곡선의 패턴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이제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창조 자산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복리를 비롯한 금융 시스템, 돈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의 것들은 일정선에 도달하면 성장이 멈추는 패턴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복리 이자를 기반으로 돈을 불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경제 논리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는 부정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화폐 시스템의 미래 주소는 붕괴이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바탕으로 손익을 따진다. 가령,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집에 단열 자재를 설치한다고 하자. 단열 설비를 하게 되면 연간 2퍼센트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8퍼센트의 비용이 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매년 6퍼센트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에 단열 자재를 설치하지 않고 고스란히 은행에 저금할 경우, 그는 연간 약 4퍼센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 요소를 배제했을 때,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이익이다. 하지만 보온을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에 따르는 환경 문제는? 물론 많은 개인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단열 설비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조그마한 손해가 사치라는 인식은 이미 팽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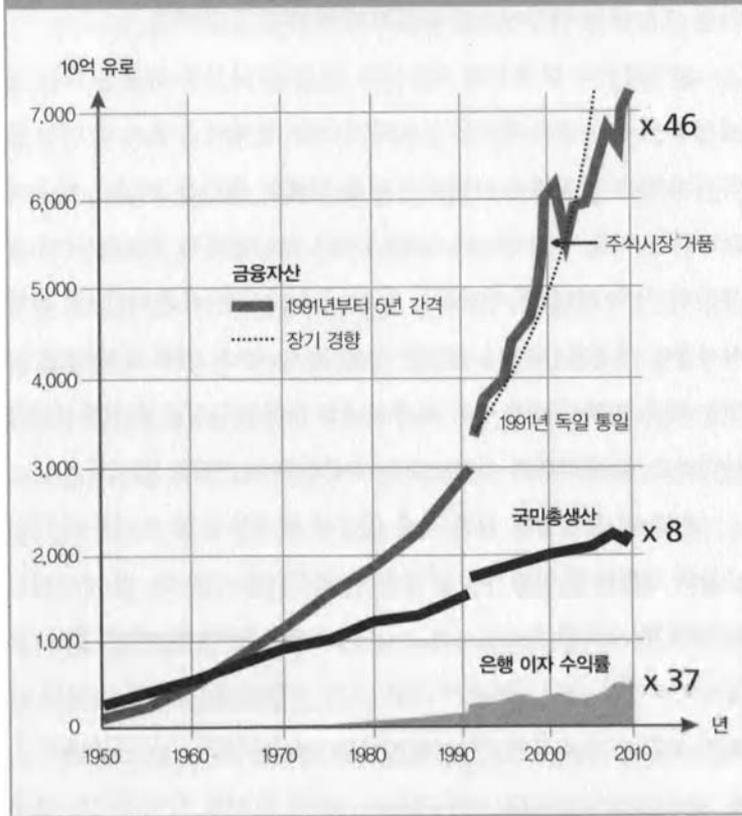
투자에서 흔히 행해지는 현금흐름할인(장래에 발생할 현금 가치에 대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으로 투자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은 복리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르면 이자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감가각감되는 투자들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환 기간이 끝난 5년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사례로 살펴보자. 이러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때에만 발전소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라

는 개념에 수천 년 걸리는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책임 범위를 포함한다면 그 누구도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천연자원의 한계성에 의존하는 '실질' 경제성장 곡선은 금융 경제성장 곡선과 같은 패턴을 보이다가 금융 경제의 수요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지점에서 이탈하여 다른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 다음의 그래프는 이를 증명하는데,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국민 총생산이 겨우 여덟 배 성장하는 동안 금융자산은 마흔여섯 배, 은행 이자율은 서른일곱 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상승시켜 화폐경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 하더라도 '실질'경제의 성장으로는 과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이자 상승과 실질 경제 성장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경제는 현실에서 무너질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는 2008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나이지리아가 처한 위기 상황을 통해 은행 이자의 감취진 위협을 토로했다. "나이지리아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5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상환일까지 160억 달러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28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진 상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로 인하여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외국 채권자가 정하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이지리아는 서슴없이 복리 이자라고 대답

03 독일 성장 곡선, 1950년 ~2010년



〈출처 : 독일연방은행(Bundes Bank), 크로이츠(her, Creutz)〉

하겠습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원조라는 명목하에 외자를 빌린 개발도상국들은 평균적으로 1달러당 13달러를 되돌려 줘야만 했고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은 원조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를 보건대 이자는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의 나라

으로 떨어뜨리는 현 시대의 새로운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기 예측은 화폐 시스템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지난 8년 동안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경제 수치는 G10 국가들의 실제 경제 수치에서 거의 50퍼센트 남짓 이탈했다. 예측의 절반이 어긋난 셈이다. 소위 세계 경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대부분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물러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몇몇이 내는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기하급수적 성장의 병폐를 과소평가한 금융 및 정치 엘리트들의 실패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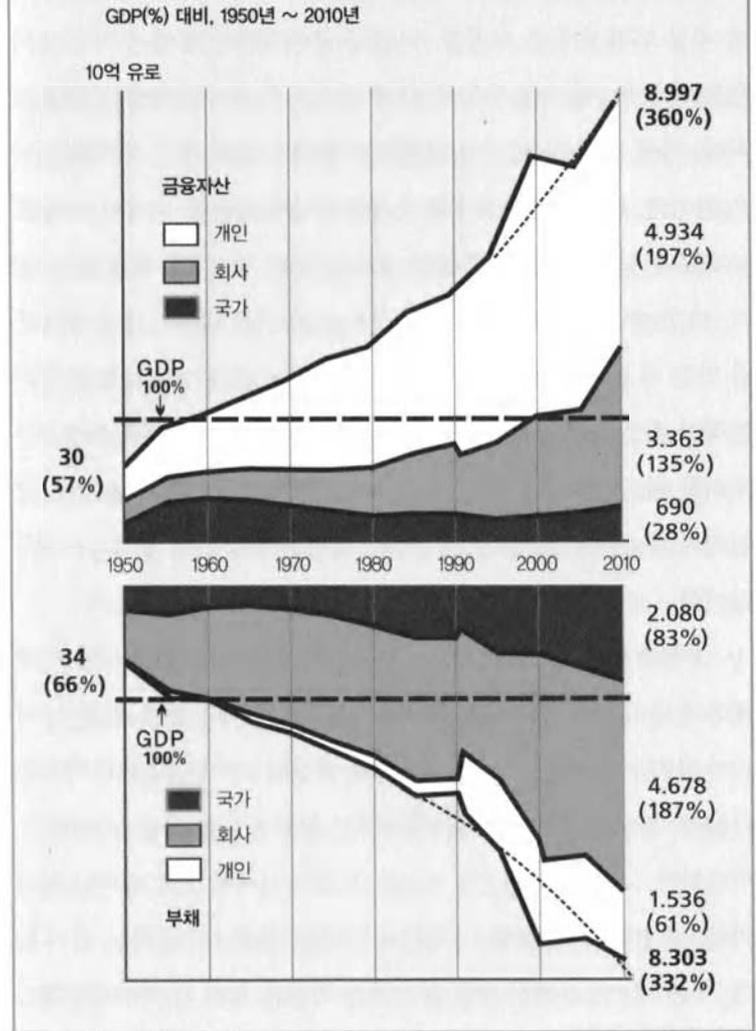
자산 = 부채, 빛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복리를 통한 금융자산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채무 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금융자산은 다른 사람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가 채무 감소를 약속할 때 반대급부로 막대한 부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때의 부는 특히 사적 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의례히 '절반의 진실'은 밝히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축 계좌,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산 가치를 잃어 손해를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 손해가 무서워서 현재 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융자산과 함께 침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현 시스템을 계획과 통제하에 평가하고 개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개혁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것일까? 역사로 눈을 돌려보자. 내가 아는 한 역사에 기록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모든 변화는 인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행과 보험회사에 우리의 돈을 맡기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수익률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한다. 보통 우리는 은행

04 독일의 금융자산과 부채



이 시중 금리만큼의 수익은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은행은 경제가 어려워져 더 이상 이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잉여 수익을 얻지 못할 때 통화, 원자재, 부동산, 주식 등으로 투자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가령 이들 중 하나인 국채는 안전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위험성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 통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과연 예금자, 보험 계약자 및 정부 보조 연금 납부자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까? 예외적인 몇몇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대신하여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돈을 받아 조합을 파괴하는 헤지펀드에 돈을 투자하는데도 말이다.

최근까지 한 국가의 부도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국가는 주저하지 않고 자국민과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가정이 그야말로 환상임을 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소위 PIGS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 이르는 유럽 국가에서 오늘 일어난 일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내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존 시스템하에서 모든 국가들은 똑같은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연방 공화국 이후 모든 독일 재무 장관은 국가 채무를 줄일 것

을 약속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들은 부채 증가율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지기만 해도 부채가 낮아졌다고 환호성을 지를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절대량이 아니라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복리 이자이다. 국가들은 부채의 원리인 복리 이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 국가 채무 이자는 사회보장 예산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차입 이자는 40억 유로(약 52억 US 달러)에 다다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향후 경제 발전 추정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종종 투명성과 모니터링, 관련 협력 등의 부재로 인해 금융 시장은 분석과 예측을 잘못하여 빛나간 투자를 한다. 그리하여 국가, 회사, 그리고 개인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 주체가 빚을 지고 사람들은 경제 성장에 급급하게 된다. 채무 이자를 지불할 만큼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누적되는 빚과 불어나는 이자의 악순환일 뿐이다. 시장은 빚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더 큰 성장을 요구할 것이고 투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가위' 효과는 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소수 계층의 부의 증가와 다수 계층의 채무 증가로 인해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정의한다. 그래프상으로 '가위' 효과를 나타낼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두 개의 곡선이 하나는 양수의 범위에서 다른 하나는 음수의 범위에서 그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자의 진실, 우리는 빛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한다

사람들은 이자란 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여긴다.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거짓임을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계 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 만큼의 노동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실례로 노르웨이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공개된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독일 국민이 쓰레기 수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퍼센트나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 당시 독일은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가격에는 38퍼센트, 정부 보조 주택 임대료에는 77퍼센트의 이자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2006년 독일 한 가구가 일상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 부담률은 40퍼센트였다. 이는 독일 한 가구 평균 소득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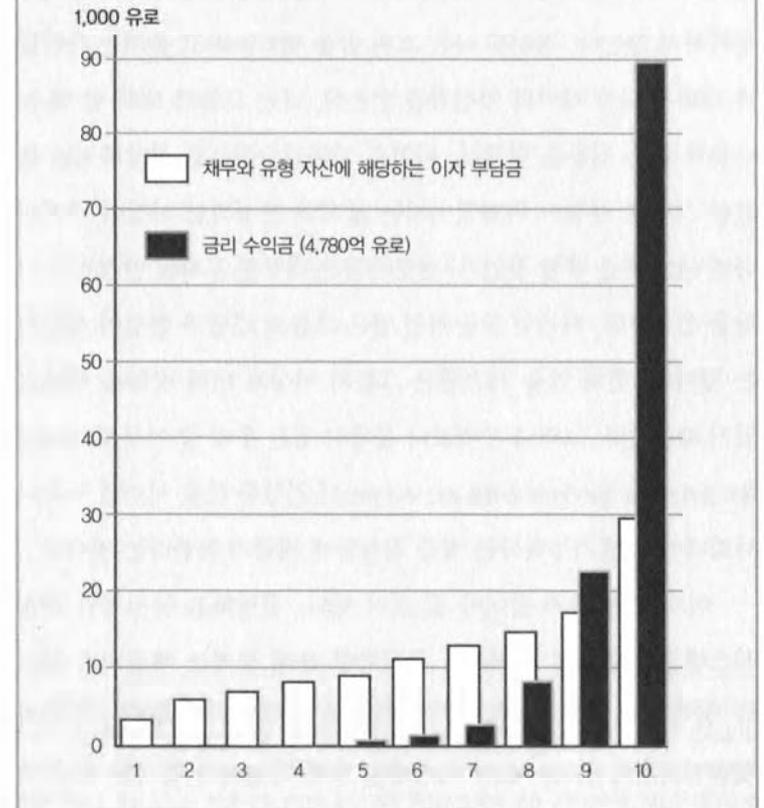
부익부 빈익빈

언뜻 보면 이자는 돈을 저축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공평한 시스템 같다. 다시 말해 저축하면 이자를 받고 빌리면 이자를 지불하는 공평한 경제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경제 신문에서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가격에 숨겨진 이자가 파급하는 효과에 대하여 곰곰이 짚어보자. 이곳저곳에 숨겨진 이자 때문에 독일인의 80퍼센트는 자신들이 받는 금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20퍼센트의 독일인 중 10퍼센트는 금리 수익과 이자 비용이 동일하며, 충분한 부를 지닌 10퍼센트만이 유일하게 금리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높다. 최상위 10퍼센트 계층 대부분은 90퍼센트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다시 금융 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 2007년 독일 소수 부유층은 매일 6억 유로가 넘게 주머니를 불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금융 시스템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벌여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비단 한 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이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금융 시스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지만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고 분석하였다. 은행들은 아직도 “당신이 맡긴 돈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됩니다”라

고 선전하며 기존 시스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05 이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

독일 가정 그룹 10개 기준 : 각 그룹은 380만 가정을 포함
(2007년 가정당 1,000유로 기준)



〈출처 : 독일연방은행(Bundes Bank), 크로이츠(H. Creutz)〉

돈을 재분배하며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강연에서 금리 시스템에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면 많은 사람들은 금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이어지곤 한다. “금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대다수 일반인이 시스템을 개혁하려 하는 걸 그냥 두고보겠어요?” 나는 그들 모두가 반대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소위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감을 얻는다. 나는 그들과 대화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만 불안한 시장과 성장이 비약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시장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대부분 후자의 안정적인 시장을 선호한다. 하지만 모순적인 점은 그들의 대답과 현실이 상반되는 것이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그들의 이상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행한 점은 우리 중 아무도(기득권자라고 불리는 금융 전문가이든 손해를 보는 대다수든) 더 건강한 금융 시스템 구축이 사회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철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불평등한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균형적인 부의 분배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실시한 부담 조정 법⁸이라던가 자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재정 조치(부에 상한을 두는

등의) 등은 바람직한 예이다.

■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2년, 전쟁 중에 발생한 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효된 법이다. 독일 정부는 전쟁 동안 재산과 기타 자산을 유지한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나치가 강제로 이주시켜 동독 등지에 머무르다 서독으로 돌아온 난민이나 강제로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였다. 독일 정부의 시도는 전쟁 직후 희망이 없던 많은 독일인들에게 부를 균등화하여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재정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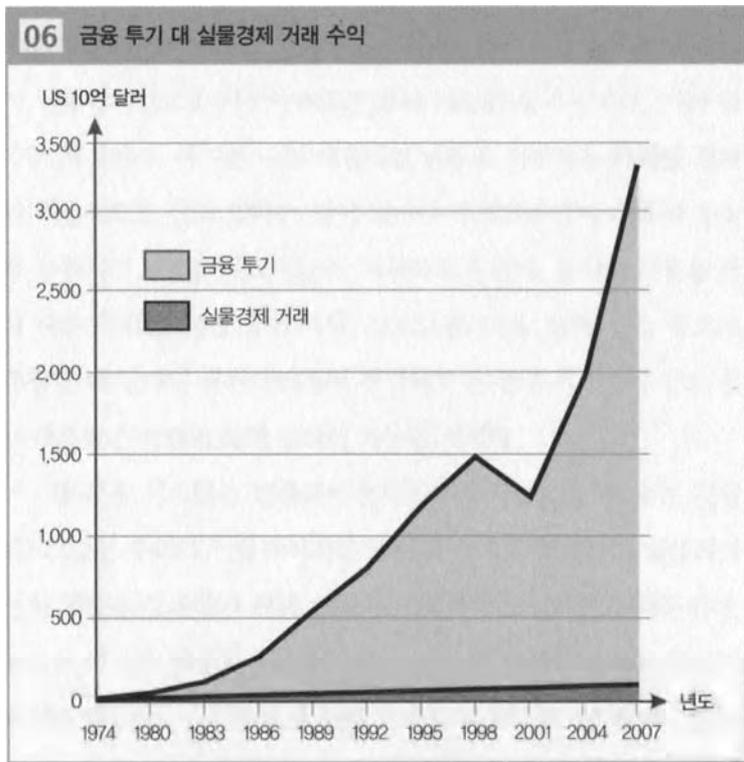
화폐 가치의 날개 없는 추락

기존 화폐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마르크화는 195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그 값의 80퍼센트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는 불과 6센트의 하락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마르크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현실에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 제도는 불가능하다.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변동을 거듭하는 화폐를 경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동일한 사물을 각각 다른 단위로, 예를 들어 미터, 킬로그램, 피트, 인치, 온스 등으로 측정할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생각해보면 경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대혼란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왜 금융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자라는 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현실 경제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가 변동하면 2년 후에 인플레이션도 따라서 변동했지만 그 반대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응하

여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리를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 투기는 종종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당 통화 무역 수익은 1974년에 20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2007년에는 3,000조 달러 이상으로 폭



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금융 시장 '하루'의 수익이다. 그래프 하단의 가장 좁은 회색 영역을 살펴보자. 아래 영역은 전 세계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금융 수익의 2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다.

금융 투기는 경제 시장에 폭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통화와 금)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러테면 채권의 채권 청구와 같은 파생 상품) 중 극히 일부만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시장에 쓰나미 같은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화폐 쓰나미를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막상 경제 위기가 닥치면 질서를 잡아줄 정치적 기구나 단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나미에서 탈출할 길은 묘연하기만 하다.

쓰나미를 막기 위하여 현재 대규모의 중앙은행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 중앙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거액의 예치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흔히 '통화 대량 인쇄'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물러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쓰나미의 파괴력에 박차를 가할 뿐이다.

유로화도 이와 비슷하다. 유럽 내 금융 투기 거래는 1990년대 유로 도입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앞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럽은 유로 통합으로 유로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금융 투기에 중지를 찍었는데 이것은 공동 통화정책의 일시적 장점이었다. 하지

만 그래프에서 유로 통합 전과 후에 각각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해보면 유로 도입이 한편으로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합 이후 무역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점이 오히려 기하급수적 성장을 부추기는 함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즉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다가오는 쓰나미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의 감옥

왜 위기가 올 때까지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심각한 결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을까? 더 직접적으로 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세상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만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우리를 세뇌해왔다. 즉, 우리는 시야를 가린 지하 우물 속에서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통화를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금융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이 올바르게 된다고 믿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갇힌 지하 감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도 문밖으로 발을 내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에서 돈은 물, 음식, 대피소 등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는 것은 자신의 생존 기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의 모든 측면은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아주 작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파급력을 지닌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대부분의 가족은 자녀를 직접 돌보았고, 부모님 역시 직접 부양했으며, 가벼운 질병은 병원에 가지 않

고 스스로 치료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서비스 같은 도움을 얻는다. 사람들은 식사, 의류 수선, 가구 수리, 간병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들이 점차 발달해왔다. 화폐 시스템도 상업과 서비스의 발달에 맞물려 나라 경제에서도 급속히 성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실질 성장이 성장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넘어서서 지구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가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했다. 경제학자 니코 페히(Niko Peich)는 파괴를 막기 위하여 '포스트 경제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니코의 모델에 따르면, 포스트 경제 사회 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경제 성장을 좇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한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모델을 '경제학적 후퇴'라고 주장하는데, 니코는 개인이나 사회적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므로 이를 후퇴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박한다. 이와 비슷하게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은 「UN행복정상회의와 석탄더미」라는 글에서 '국내총생산이 삶의 질과 복지 지수를 측정하기에 매우 빈약한 수치라고 인식한다'라고 말한 사회 비평가들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3배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행복 지수는 하락하여 오히려 많은 미국인들은 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삶을 평가한다.

이렇듯 경제 불황과 더불어 사회가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경제 불황의 고문을 겪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2부

OCCUPY MONEY

어떻게 화폐를 점령할 것인가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환 매체 역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 돈은 더 이상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자를 폐지한다면, 사회에서 돈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이자 폐지는 과거에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자로 포화된 시장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떨어뜨려 이자의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면서도 돈을 순환시켰던 모델도 존재한다. 바로 스웨덴의 JAK은행 모델과 디머리지(Demurage)라고 불리는 초과 정박료 메커니즘이다. 그것들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무이자 대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운영 원리인 이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모델 중에 눈에 띄는 하나는 스웨덴의 JAK은행이다. 1965년에 출발한 JAK은행의 철자는 스웨덴어로 토지를 뜻하는 'Jord', 일을 뜻하는 'Arbete', 자본을 뜻하는 'Kapital'의 머리글자로 구성되어 은행의 의미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JAK은행은 조합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지역 농촌 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은행이다. JAK은행은 경작 수익금으로는 금리와 함께 급격하게 불어나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대거 가입하여 시작되었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이 도시로 흘러가 자본과 자원이 부재하는 지역사회에서 농민들은 더욱 허덕이게 되었으며 JAK은행의 조합원 수는 그만큼 증가하였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JAK은행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JAK은행이 지역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익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JAK은행은 농민들 외에 스웨덴 사회의 각계 각층으로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8년까지 3만 5000명의 조합원, 9,700만 유로의 저축, 8,600만 유로의 신용 거래 규모를 자랑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JAK은행은 일반적인 은행과 다르게 비영리 기관이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집착하지 않고 조합원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법적으로는 JAK은행은 협동 조합이라고 정의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JAK은행이 추구하는 사회 환원 기능과 조합원 간의 연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조합 은행'으로 불리길 원한다. 이러한 목표는 주요 금융 기관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상업은행(최근 금융 위기에도 부실 채권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독일의 스파카센Sparkassen과 미국의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립은행을 제외한)의 목표와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듯 JAK은행은 조합원 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운영되기 때문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기존 금융 시스템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며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JAK은행은 여러 가지 실례를 바탕으로 작은 규모로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조합원 사이에 긴밀한 유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하여 JAK은행은 스웨덴 각지에서 유동적으로 고객들과 보다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JAK은행 조합원들은 집을 사기 위해 혹은 금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만 개설하면 조합의 구성원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저축 액수와 관계 없이 은행의 주요 결정에 참여권이 주어지고 은행의 전략과 방향 결정을 위한 발언권도 갖게 된다. JAK은행의 카드만 소지하면 일반은행의 주주 권리를 고스란히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 개인은 은행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게 되어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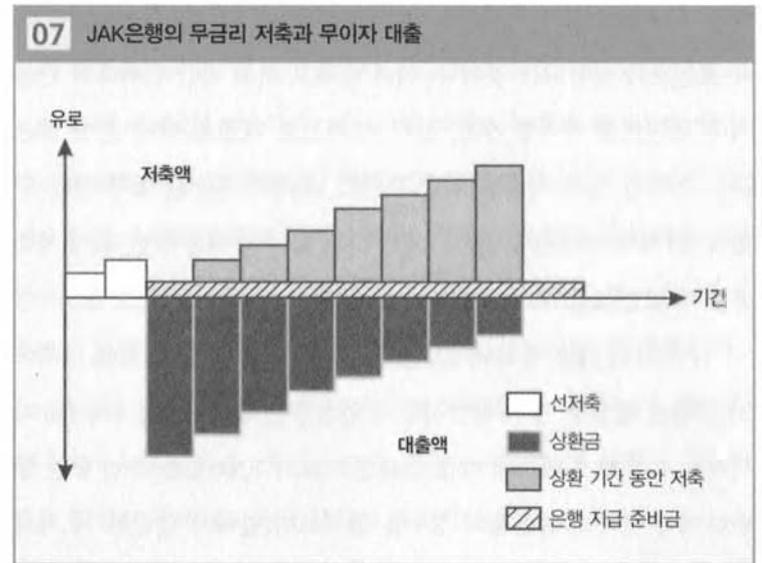
은행은 이자에서 얻은 수익으로 고객 계좌와 금리, 대손 위험, 부실 채권 리스크, 급여, 인플레이션 헤지(인플레이션 대비책), 은행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익 등의 여러 비용을 지급한다. 최근 스웨덴에서 이러한 비용들은 8퍼센트의 이자 비용 중 1.7퍼센트나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지난 수십 년 평균치). 이와 다르게 JAK은행은 순수 운영 비용(0.8퍼센트의 리스크 프리미엄, 예금자가 받는 4퍼센트의 유동성 프리미엄, 1.5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포함)을 제외한 비용들을 줄여왔다. 다음 비교를 통하여 일반은행과 JAK은행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살펴보자.

일반은행과 JAK은행의 이자 체계 비교

	일반은행	JAK은행
은행 행정 비용	1.7%	1.7%
리스크 프리미엄	0.8%	0%
유동성 프리미엄(이자)	4.0%	0%
인플레이션	1.5%	0%
합계	8.0%	1.7%

JAK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저축하여 신용을 쌓아야 한다. 이는 저축 포인트를 발생시키는데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아래 그래프를 참조하면 대출 상환금과 은행 업무 수수료, 예금 계좌 비용이 상환 금액의 세가지 주요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출 이자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JAK은행에서는 대출에 이자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로 JAK은행은 저축에 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저축을 하면 신용이 쌓이고 쌓인



(출처 : 마크 아니엘스키(Mark Anielski))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원리로 신용이 금리와 이자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확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금리 없는 저축을 하여 다른 누군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훗날 필요할 때 나는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은 마지막 상환금을 갚은 후 반년에 한 번씩 저축한 금액의 90퍼센트까지 출금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JAK은행은 대출 이자 대신에 대출금에 해당하는 저축 포인트를 삭감한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가령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저축하면 저축 포인트 1점을 적립할 수 있다. 그후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빌리면 가지고 있던 저축 포인트 1점을 차감한다. 만약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더 빌리면, 저축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대출 기간과 대출액 만큼 저축 포인트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저축 기간과 저축액 만큼 저축 포인트를 누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출을 하기 전에 많은 돈을 저축한 경우 적립된 저축 포인트 내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적된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을 한 후에 저축을 하여 포인트를 다시 적립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가령 25년 동안 스웨덴 크로나 20만 원을 대출한 경우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평균적으로 8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스웨덴 크로나 1,588원을 25년 동안 상환하여야 한다. JAK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각각 계산하여 더하면 매월 스웨덴 크로

나 1,511원이 된다. 세 가지 요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 대출 상환 : 스웨덴 크로나 667원
- 은행 업무 수수료 : 스웨덴 크로나 190원(2% 이하)
- 예금 계좌 관리료 : 스웨덴 크로나 654원

25년 동안의 총 금액을 계산하면 일반은행의 경우 상환금과 이자를 합쳐 스웨덴 크로나 47만 400원이 된다. JAK은행의 경우 만기일이 되면 일반 은행보다 다소 적은 스웨덴 크로나 45만 33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차용인은 자신의 계좌에 스웨덴 크로나 19만 6200원에 해당하는 신용 잔고가 쌓이게 된다. 일반은행 차용자의 신용 잔고는 왜 쌓이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차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수수료와 리스크 프리미엄 명목으로 은행에 돌아가거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계산하면 스웨덴 크로나 27만 400원으로, 이는 차용자들이 25년 동안 상환하는 돈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JAK시스템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JAK시스템은 대출 가치는 높게, 저축 가치는 낮게 매겨서 자체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다(일 그래프 참조).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대

08 일반 상업은행과 JAK은행의 대출 비교 (단위 : 스웨덴 크로나)

	일반 상업은행	JAK은행
대출액	200,000원	200,000원
대출 기간	25년	25년
월 상환금	1,568원 (8% 이자 포함)	667원
은행 업무 수수료	0원	190원
예금 계좌 관리료	0원	654원
월 총 상환금	1,568원	1,511원
25년 합계액	470,400원	453,300원
신용 예금 잔고	0원	196,200원

위험 해지 :

JAK은행 협동주 6% = 12,000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에 출금 가능

저축 :

600,000 저축 포인트 = 2년 동안 월 2,000원

출 전에 의무화되는 사항으로 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대개 보험료 명목으로 부과되는데 일반은행과 대조적으로 JAK은행은 리스크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비용을 7개월에서 9개월 후에 대출자에게 되돌려준다. JAK은행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조합원 모두가 JAK은행의 성공과 실패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합원 모두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돌려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처한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구성원으로 남아 새로운 저축 포인트를 보상으로 받는다. 많은 경우 저축액은 비영리 프로젝트나 자선이 없는 젊은이들의 학업, 주택 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JAK은행의 핵심 원리(대출과 저축의 균형)는 적용된다.

JAK은행은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 금융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은행 윤리와 사회적 기여, 조합원들의 협동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JAK은행의 조합원들이 더 이상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JAK은행의 평가는 증명된다. 조합원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무이자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점을 알게 된 것이다.

JAK은행은 지점이 필요 없다. 인터넷 은행이나 우편 수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을 포함한 은행 직원들은 같은 금

융계 종사자들이 받는 연봉의 평균 이하 임금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한다. 각박한 금융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이익을 추구하고 조합원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은행에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JAK은행에는 약 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들은 중앙 본부의 지원을 받아 각각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지만 은행에서 연중 진행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JAK은행의 가맹 은행들 역시 비정상적인 낮은 수수료로 은행을 운영한다. 가맹 은행들의 수수료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균 2퍼센트 전후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가맹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일반 은행과 다르게 변하는 금리에 촉각을 세우지 않고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JAK은행에서는 오히려 은행 잔고에 저축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물론 대출 이자가 없는 대신 저축 금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저축한 돈이 금리가 되어 바로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내가 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건설적인 돈의 개념이 아닐까?

여담이지만 스웨덴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JAK은행 시스템을 열

렬하게 지지한다. JAK은행의 기본 원리가 과거 이슬람의 샤리아^{Sharia}가 따르던 돈의 윤리 원칙과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만들어낸 선례는 우리가 JAK시스템과 같은 은행을 도입하여 개인과 사회 경제에 건설적인 과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병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 일반 은행이 JAK 시스템을 시행할 경우 시장 제품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자가 가격의 4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자를 제하면 제품 가격은 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되는 약 2퍼센트의 은행 업무 수수료와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 부가되는 리스크 프리미엄만 포함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시장 모두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은행 시스템하에서 소수 계층만 유익한 부의 상향 재분배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앞서 살피본 독일의 경우 하루에 6억 유로가 소수 부유층에게 귀속되었다).
- 장기적으로 JAK 시스템은 금융 경제 시스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과는 달리 회원의 동의 없이 함부

로 올릴 수 없는 낮은 고정 비용 덕분에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위의 긍정적인 측면과 대조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회에서 비영리 사업은 보통 재단의 몫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재단들은 소유한 자본의 금리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들이 오히려 이자 시스템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합한 대안이 있다. 투자금으로 JAK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대출을 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준비되어야겠지만 이처럼 JAK 시스템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도하여 금융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퍼져나가길 바란다.

이자 대신 디머리지

‘디머리지(Demurrage)’라는 용어가 있다. 디머리지는 물건을 내리는 의뢰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초과 정박 기간에 대하여 선박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이는 다음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화물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디머리지는 정제된 화물선의 회전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경제 시스템에 응용하면 디머리지는 내가 돈을 주머니나 은행 당좌 계좌에 퐁퐁 묶어 두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보관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불 되어진다. 직접 환불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 감액을 통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통하여 환불된다. 디머리지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은행을 통하여 단기 혹은 장기 대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후

■ 디머리지는 주어진 기간 동안 화폐를 보유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금과 같은 상품 화폐의 경우 보관비 수수료의 형태로 종이 화폐의 경우 인지세와 같은 세금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

자로 결정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돈이 계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될 것이다.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디머리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돈은 이자 원리라는 인센티브가 없이 순환될 수 있다.

디머리지는 이자 시스템이 초래하는 병적인 성장 패턴이나 부의 상향 재분배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아이디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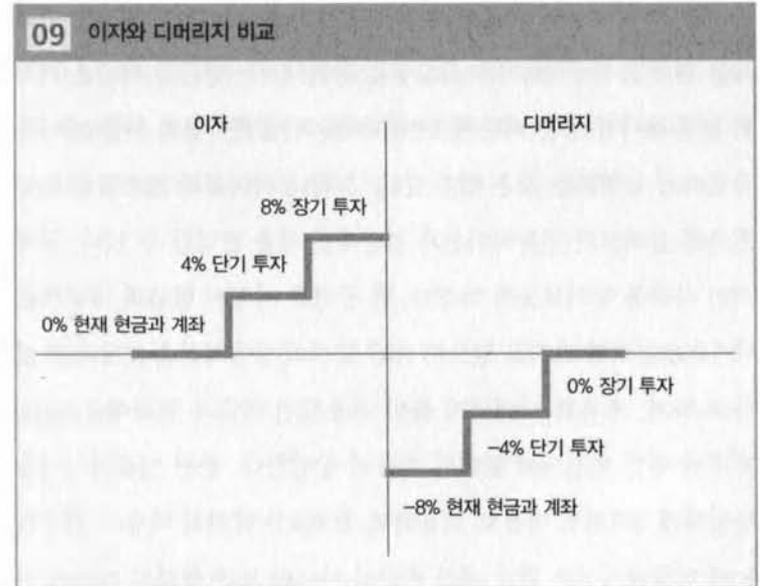
만약 은행이 고객 대출 수요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에 잉여금을 일시적으로 맡김으로서 디머리지 초과료 지불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순환되는 돈의 양을 기존 시스템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디머리지 금융 시스템은 금리 소득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것을 막고 돈을 회전하게 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이라고 여길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실체를 보자. 가격에 숨겨진 이자? 저축과 보험 정책을 유린하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존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 게다가 디머리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화폐 시대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부를 누리던 소수의 10퍼센트 계층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

나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화폐 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 JAK은행 시스템이 번영하듯 디머리지 시스템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했다. 하지만 디머리지 시스템은 지금까지 시도된 대안 화폐 모델 중에 가장 쉽고도 공정한 방법이다.

디머리지 시스템이 어떠한 변화를 만드는지 살펴보자.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점의 현금과 당좌계좌에서 금리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예금액의 1퍼센트에서 4퍼센트, 장기적으로는 4퍼센트에서 8퍼센트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디머리지 시스템의 경우 현금과 당좌 계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4퍼센트에서 8퍼센트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에금에는 1퍼센트에서 4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장기에금에는 디머리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이 장기에금 계좌에 예치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때문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그 돈을 빌린 다른 사람이 지불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중앙은행에 일시적으로 돈을 맡길 수 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디머리지가 인플레이션의 다른 형태는 아닐까? 기존 시스템을 순환시키는 당근과 채찍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이다. 때문에 디머리지와 인플레이션의 역할 차이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디머리지 시스템의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정반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한 중산층 가정이 현금과 당좌예금에 5,000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1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초과료 디머리지 룰이 적용되면 현금과 당좌예금 5,000 달러에 대한 연간 400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동일하게 8퍼센트 비율로 적용하면 총 8,000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은 현금 자산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산에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되는 수수료 400 달러는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가령 필요하지 않는 돈을 금리가 발생하지 않아 디머리지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 저축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루어 보건대 디머리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리를 통한 공짜 소득(단순히 자산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는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 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 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 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돈의 미래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묶어두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내어 현재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복리 이자 원리를 이용하여 부를 끝없이 축적하려는 소수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대다수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넘어서서 모두 복리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만민을 계시했다. 알라가 마호메트에게 왔다는 이슬람교 규칙 사리는 비도덕적이고 사회에 유해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와 투기,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대출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나 은행은 공동 출자의 형태로, 즉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역할했다. 그리고 투자 비용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받았는데, 프로젝트 비용의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경우 프로젝트 이익금의 50퍼센트를 받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에 비례하여 부담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채권자라기보다 프로젝트의 참가자로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관심 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유대교는 7년마다 부채를 사감하는 인종의 기념일을 선언하여 복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대교의 기념해 정책은 7회 거듭한 후 다시 7회, 즉 49년 후에는 부채 뿐만이 아니라 노예 계약에서도 해방시켰고 사유재산은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세에 유럽 기독교는 이자 시스템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독교 사회에서 추방됨과 동

시에 후에 기독교 매장 권한도 박탈당하였다. 특히 한쪽 면만 새겨진 특정 동전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화폐를 순환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디머리지 시스템과 비슷한 원리였는데 국가조폐공사와, 주교, 왕은 이 특정한 주화를 3년 혹은 4년마다 수거하고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주화량을 줄여 새로운 주화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풀인 차액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정되었다.

누군가는 3년마다 갑작스런 공고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현금과 담좌계좌를 국가에 강제로 내야 하는 중세 기독교의 주화 정책에 반대할 표한지도 모른다. 게다가 20퍼센트나 줄이는 돈을 돌려 받게 된다고? 불만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것으로 중세 유럽에 사는 당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20퍼센트의 세율은 현대 많은 유럽 국가의 세율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무엇 보다 중세 기독교의 주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통화 가치의 안정성 유지, 무이자 대출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가에 화폐를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 화폐 사재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빌려준 돈만 받으면 만 족하는 시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빌리는 대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당연히 투기 문 화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만 하

면 투자를 하었는데, 주택, 고풍스러운 가구, 보석, 그림, 귀한 소품 등이 주요 품목 대상이었다. 소위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일반 시민들조차 여유 있는 삶을 누렸고 덕분에 지역사회는 건축만 200년 이상 이 더 걸리는 성당을 지역 주민의 기부금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할 성당을 짓는 데 가까이 투자할 만큼 지역 사회가 누렸던 삶의 여유는 풍요로웠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 된 중세 성당을 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산더미처럼 쌓인 빛과 책페기물 더미는 아니길 바란다.

이자 시스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종교계의 세 가지 대안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샤리아 모델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에 반기를 드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럽의 은행들 역시 샤리아 모델에 따른 예금을 허용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개발도상국의 비상한 채무의 해결책으로 유대인의 기념해 정책 적용을 제안하는 캠페인(주로 기독교 교회에서 지원하는)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후손들은 유로 구제 정책을 유대인의 기념해 정책처럼 “유럽 기념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대안 화폐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독일어권의 지역 화폐들이는데 초과료 정책과 비슷한 원리로 순환되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를 갖추어 범세계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규모와 수적인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랜 역사에서 찾아낸 세 가지 대안 정책(샤리아의 공동 투자, 유대교의 기념해, 디버리지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았던 곳과 시대에는 항상 참담한 사회 경제 문제를 경험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충돌, 사회 혁명,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전쟁.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1929년의 충돌, 지난 37년 간의 124회의 금융 위기(IMF 2008),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 각국의 혁명, 심지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오류를 발견하거나 개선을 시도하지 못했다. 결과로 우리는 세계화라는 하나의 등지 안에 갇혀 국경을 넘어 일파만파 번지는 금융 위기와 경제 불균형의 제도적 위기를 두려워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에바 마리아 후베르트(Eva-Maria Hubert)는 이자 시스템을 금지한 전통적인 제도들이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해왔다. 그녀는 경제 교과서라 불리는 이자 시스템을 옹호하는 『이자의 기능』이란 책을 분석하여 이자 시스템을 기본 체계로 하는 통화는 다섯 개의 근본적인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녀가 찾아낸 다섯 가지는 성장에 대한 집착, 부의 상향 재분배, 위험과 유동성 분배 오류, 금융자산 성장과 함께 불어오는 채무, 마지막으로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다.

획일성을 이기는 다양성

주위를 둘러보자. 세계 어디를 가도 주택 모양이 각각 다르다. 취향과 필요에 따라 자동차 모델도 다르고 계절과 개성에 따라 옷의 디자인도 다르다. 화폐는 어떠한가? 각각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는가?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화폐를 아이스크림 가게에 달려가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IC카드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여 교육, 건강, 대중교통에 이르는 상품과 서비스를 각각 다르게 구매하려 할 것이다.

새로운 화폐는 단순한 숫자 성장이 아닌 모두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 친환경 혹은 문화, 사회 사업 대부분은 사업 목적이 수적인 성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곤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대안 화폐는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안 화폐를 각각 다르게 설계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한 가지 관점에서 칭찬받을 만한데 바로 시스템의 효율성이다. 세계 증권거래소에서는 수백 만개의 금융 거래

가 단 몇 초 만에 처리되고, 소수점 14자리까지 이익과 손해가 정확하게 분석된다. 하지만 거래의 바다에서 보험회사와 투자은행, 정부, 다국적기업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쉽게 거두어들인다. 때로는 제품 판매보다 금융 거래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큰 고래들의 거래 속에서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늘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이 금융 거래 이익을 효율적으로 최대화하는데 굳이 대안 화폐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목재 산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숲을 다양하게 경작하는 것이 단일하게 경작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성장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단일경작 종이 해충에 감염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감염되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화폐 단일경작도 위험하다. 오늘날 모든 국가의 통화는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현재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경제는 붕괴의 구름에서 제외 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과는 세계 금융 재앙이다. 그러므로 대안 통화 도입은 시급하다. 금융 시스템을 다양한 원리로 작동하여 전세계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여러 가지 통화가 존재하면 통화의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원리로 작용하는 통화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앙은행과 정치,

입법기관은 대안 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경제학계는 대안 화폐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현실에 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안 화폐 모델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간단한 원리로 쉽게 실행 가능한 모델, 기능면이나 혜택면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마지막으로 아직 시도되지 않아 혁신적인 옹호가 필요한 모델까지 다양한 대안 화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투명한 은행과 윤리적 투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내가 투자한 자금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을까?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도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유럽 국가에서부터 미국, 몽골, 니카라과, 페루, 방글라데시 곳곳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지금 윤리적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아래 투명성을 슬로건으로 하여 윤리적 투자에 앞장서는 은행들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 사회의 윤리적 인식을 은행 서비스에 적극 반영 : 사회 윤리적인 사업이 아닐 경우 투자를 허용하지 않음
- 은행 대출 시 다음의 사업을 우선으로 함 - 해당 지역 사회 제품의 제조와 판매, 공정 무역, 친환경 사업 : 인터넷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투자 보장
- 보건 의료, 사회 정의 및 기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투자한 고객과 투자 성과를 공유
- 가족적인 분위기의 친절한 서비스

- 전문가의 신중한 상담 서비스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과 서비스
- 고객의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명한 투자로 수익성을 보장

2008년 위기 당시, 위와 같은 은행들은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하지만 2008년을 전환점으로 이러한 은행들은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독일의 GLS은행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종류의 독일 은행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일반적인 은행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GLS은행은 2008년 이래로 매월 평균 2,000명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 화폐

수많은 대안 화폐들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 통화와 함께 공용되며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화폐들도 존재한다. 대안 화폐는 지리적인 측면과 목적적인 측면으로 분류되는데, 지리적인 측면에서 대안 화폐는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화폐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측면으로 대안 화폐를 살펴보면 교육, 의료 보건, 중소기업, 문화, 연금 등으로 사용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듯 대안 화폐는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선구자는 단연 캐나다 밴쿠버 출신인 마이클 린턴(Michael Linton)이다. 그는 일명 '레즈(Lets)'라고 불리는 지역 화폐를 고안하였는데 현재 시도되는 대안 화폐 중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녔다. 레즈는 1980년 초부터 빠르게 전 세계로 보급되며 20명에서 2,000명으로 회원 규모를 급속히 확장하였다. 원리가 간단하고 빠른 도입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회원들이 서비스와 상품을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인데, 가령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앙 기관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실패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 기관이 회원들의 계정을 재빠르게 추적하지 못하면 어떤 회원이 신용을 쌓고 있는 동안 다른

회원은 신용을 잃어 불량 계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레츠의 단점인 중앙 제어 기능이 전체 시스템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콘스탄틴 키르크Konstantin Kirsch는 미누토 타임 크레딧(Minuto Time Credits) 원리를 도입했다. 중앙 기관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타임 크레딧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고, 지역 경제와 환경에 유리한 발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타임 크레딧은 개별 지역을 지원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 간에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역은 누구나 자신의 미누토 크레딧을 만들어 현금처럼 사용하였는데 크레딧은 분당 노동량을 가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타임 크레딧'이라고 불렸다.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미누토는 무기명 채권이다. 미누토 타임 크레딧은 개인의 노동량을 바탕으로 각자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적인 대안 화폐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동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안 화폐 외에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안 화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몇 개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책에서 다룰 모델 외에도 세계 곳곳에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대안 화폐 모델들이 존재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시간 은행 : 어느 일본 법무 장관이 1995년 은퇴를 맞이하면서 일본 국가 연금이 나라에서 급성장하는 노인층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시간 화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간 은행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령자에게 간단한 서비스(쇼핑, 산책, 식사, 독서 등)를 제공하고 노동 시간 만큼 현금화하는 후레이-키푸(Fureai-Kippu) 시스템(영어로는 케어 티켓(Care Ticket)이라고 함)이 그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시간 화폐를 나중에 자신들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 화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시간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시간 화폐는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한국을 거쳐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포르알베르크(Vorarlberg)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한다. 워싱턴 DC의 에드가 칸(Edgar Cahn)의 실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된 위스콘신 매디슨에 있는 데인 카운티(Dane County) 지역의 시간 은행이다. 2005년 10월, 단 20명에서 출발한 시간 은행은 현재 1,900명의 회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성과 또한 놀라운데, 50만명의 인구를 가진 1,200평방 마일의 지역에서 회원들은 지난 6년간 6만 시간을 서로 교환하였다.

시간 은행의 주요 목표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연결하여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청소년 법정, 어린이 상담소, 지역 가스 전기 회사, 지역 건강 협회 등에 이르는 125개의 지역 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비슷한 모델은 독일에서도 제안되었다. 헤르베르트 헨츨러Herbert Henzler와 로트하르 슈패트Lothar Spath는 『세대 조약The Generation Treaty: Why the Elderly Are Not the Problem, but the Solution』이라는 저서에서 연금 지급 시스템 원칙 세 번째 조항을 언급하며 시간 화폐를 도입하여 노령층 서비스를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제안은 갑론을박으로 이어졌지만 대안 화폐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전역에 걸쳐 공식적으로 사용이 인정되었다. 시간 은행은 실행이 간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돌아간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인간 모두가 공평하게 소유하는 귀중한 상품인 '시간'에 근거하여 기존 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병용 화폐 : 병용 화폐는 기존 국가의 화폐나 법정 화폐와 공용되는 화폐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대안 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되는 특성을 지닌다.

개인 병용 화폐 가운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바터 시스템Barter System이다. 바터 시스템은 회원 간에 원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현금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국제호혜무역협회International Reciprocal Trade Association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중앙 관리 체계로 중앙 부서에서는 회계 관리에 총 책임을 지고 관리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세금 납부를 포함한 지급 규정, 한도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 필요한 중앙 관리 비용은 회원들의 거래에서 일정 비율로 충당한다. 2009년 국제호혜무역협회는 바터 시스템의 연간 산업 매출을 미화 약 100억 달러로 보고하였다.

병용 화폐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교환 거래 뿐만 아니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WIR 화폐와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RES가 좋은 예이다.

WIR은 스위스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1934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기업가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몇몇은 실적과 기업 평판에 따라 상호 용자를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제품 및 원재료, 서비스를 현금 없이 직접 교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WIR 화폐의 모태로 오늘날에는 스위스 프랑과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다.

과거에 WIR은 당좌예금 계좌와 종이 바우처로 거래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신용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은 WIR 프랑과 스위스 프랑을 카드 하나로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적 화폐와 대안 화폐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는 전 세계 최초인 셈이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15개 지역 6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WIR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 이는 스위스 중소기업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게다가 2010년 WIR 회원 중소기업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160억 WIR 프랑에 이르렀다.

77년의 역사를 거슬러오며 WIR 시스템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빛을 발하였다. WIR 시스템은 시장 원리에 반주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다양한 금융 기업들에게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일반 은행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 쉽게 대출을 해주고 반대로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대출을 줄이며 심지어 이자를 상향 조정하거나 담보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일반은행 시스템은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보다 경제의 흥망성쇠 주기를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반면 WIR 시스템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순환되지 않아 기업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병용 화폐인 WIR 프랑을 사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WIR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대출 신청이나 거래를 수락하기 전에 WIR 프랑으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보통 사용자들은 WIR 계좌에 잔액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데, 이는 금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WIR 시스템은 검증된 회원들만 참여가 가능한 WIR 서클

Circle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정성이 높다.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WIR 시스템은 대규모 투자에 관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90년 WIR 서클은 사업 영역을 일반은행 업무까지 확대하여 WIR 대출과 스위스 프랑 대출(이자 원리 적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비영리 단체인 국제호혜협회의 원칙만 따르는 비교적 자발적인 바터 시스템과는 다르게 WIR은행은 스위스 은행의 감독하에 전적으로 관리된다.

WIR에서 파생된 병용 화폐가 있다. 기업 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기에의 RES 모델이다. 벨기에 정부는 계정 및 내부 관리 협정을 검토한 후 2007년에 RES를 대안 화폐로 공식 인정하였다. 협정을 위해 45만 RES 유로가 소요되었지만 RES의 미래 가치는 지출된 비용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RES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 형태의 주식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업이다. 3가지 주식 중 첫 번째는 창립주로 창립자가 100퍼센트 소유한다. 두 번째인 B주는 한 주당 가치가 1유로로 가맹 상인들이 RES 법적 등록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주는 한 주당 2,500유로로 B주를 소유한 상인들이 최대 10주씩 구매할 수 있다.

RES 발행 회사는 부적합한 거래를 일삼아 재정 상황이 불량한

수많은 기업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RES 발행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가운데 RES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가맹 회원 2만 명과 사용자 25만 명 증대를 목표로 삼아 현재 벨기에 각지에 21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지역 화폐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곳에 영리하게 투자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전 세계 투기 자본의 최대 40퍼센트가 중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는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 원리에 의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표준 화폐 시스템은 한 사회에서 이익을 얻고 나면 그 사회에서 자본을 거두어들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곡창 지역으로 자본을 옮겨간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화폐가 개별적으로 고안될 때 화폐의 순환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 화폐의 자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여러 당사자가 지불 수단으로 상호 합의한 일종의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화폐가 어느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안되어 사용될 때 주민들은 지역 화폐 거래를 능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증진을 촉구할 수 있다. 지역 화폐의 물건 구매 단계를 살펴보자. 지역 화폐로 제품을 거래하였다면 판매자는 후에 해당 지역에서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무언가를 소비해

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 화폐와 유로화나 달러화 같은 일반 화폐 사이의 가장 분명한 차이이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일반 화폐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화폐 기능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술과 기계, 생산성, 건물, 토지,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그대로 일 것이다. 하지만 거래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않아 사람들의 고용 수준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불 수단을 요구할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 안전하다고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래를 대비하여 돈을 저축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과잉으로 묶어두는 경우, 돈이 시장에서 순환되지 않아 이자율은 치솟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실업률은 증가하고 사회는 불안해질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중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화폐뿐이다. 더 나아가 대안 화폐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회복시켜 소용돌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실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역 화폐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한발 늦게 경제 위기가 만연한 후 지역 화폐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증진 외에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결속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비타민제인 셈이다. 또한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전한 삶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구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조정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동적일 수 있다.

지역 화폐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지역은 정치적 단위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주민 참여가 없다면 지역 화폐 도입은 수동적일 것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지칠 것이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창조하고자 했던 희망의 불꽃은 사그라들 것이다.

많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업률 증가, 사회 부패, 폭력의 확산, 지역 사업 도산, 교육 받은 지역 주민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여러 가지 난황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화폐는 이들에게 하나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건하며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화폐가 국가 화폐를 대체할까요?” 나는 종종 이런 질

문을 받는다. 물론 대답은 “아니다.”이다. 지역 화폐는 다른 대안 화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화폐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한다. 디머리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 국가 화폐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화폐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중산층은 평균 3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40퍼센트를 소비한다. 하지만 무이자 지역 화폐나 JAK 시스템, 다른 대안 화폐들을 도입하면 현재 금융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자에 지불하는 비용의 75퍼센트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혜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품 생산자들이 무이자 지역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품 가격에 정직하게 반영하여야만 한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음식, 물, 폐기물 처리 서비스, 에너지, 교육, 의료 보건 등)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면 지역 소비자들은 이들을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은 금융 시스템을 통하여 대출 이자를 제거할 수는 없을 지라도 기본적인 필수품 가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화폐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은 금융 거래로 수익을 얻는 글로벌 대기업과는 달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부흥하면 지역 일자

리 창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부흥한다. 지역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임금이 증가한다. 또한 지역 실업보험 지급이 줄어들어 지역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덧붙이자면 2003년부터 독일 바바리아 키무가우 지역은 무이자 또는 저리의 지역 소액 대출을 실행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 그로 인해 지역 기업 경제는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지역 화폐는 기업이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신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풍력에너지나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경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화폐 사용은 지역 무역을 발전시키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단계를 줄이므로써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게다가 지리적 근접성을 더하여 지역 내 사업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도 있다. 이자 시스템이 극히 국한된 친환경 사업에서만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치원이나 요양원은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키무가우 지역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듯이 무이자 지역 대출 시스템은 이자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문화 사업, 사회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정부들은 전략적으로 민영화를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초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에 민영화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에 금융 재앙을 야기할 뿐이다. 영국은 수도 공급 시스템을 개인 투자자에게 민영화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 전체 수도 공급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곤란을 겪었다. 비슷한 사례는 런던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런던시는 도시 지하철 시스템을 민영화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매각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되살 수 밖에 없었다. 민영화 바람으로 시달리던 영국 당국은 민영화 대신 지역 화폐를 시도했고 지역 스스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사업을 관리할 수 있었다.

지역들은 국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개별적으로 지역 화폐를 실시하여 지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화폐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국가 부채 위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경제를 불안하게 할 때에도 지역 화폐는 지역 수준에서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화폐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불거지는 의문점이 있다. “만약 국가 화폐가 파산되어 가치가 없어지면 국가 화폐와 일대일로 환원되는 지역 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날카로운 지적이다. 관리 위원회를 감독하는 지역화폐협회는 국가 화폐가 평가 기준으로 역할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 화폐의 가치를 매기기 위

한 규칙을 조례를 통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간 평균 비용, 재생 가능한 태양광 킬로와트 시간, 물의 부피 등이 기준이고 회원들은 합의를 통하여 다양한 기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 시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진국들이 기존의 국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언제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거나 통화 절상을 계획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이런 '우아한' 해결책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생각은 이미 현실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채무 더미에서 함께 의사하기 전에 각각의 지역들이 지역 화폐를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구명보트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큰 배가 안전할 때 구명보트는 조그마한 고무 풍선처럼 보이겠지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작은 보트는 바다를 향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 울타리에 보호막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주민들은 머뭇거리며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역 화폐를 국가 화폐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을 하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이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마다 각자의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선거로 선출된 후 지역 의원들이 회의 탁상에서 고민하는 문제

는 늘 정해져 있다.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 혹은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역 화폐에 있다. 지역 화폐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미흡한 점을 충족하는 것이다.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왜 보너스 마일리지를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항공사는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을 위해 사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약되지 않은 빈자리를 마일리지와 교환하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해당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지역도 항공 마일리지처럼 지역 화폐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지역 내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별히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하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 설계된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무에서 과일이 익어 떨어지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역에는 남는 자원들이 많다. 버스나 수영장, 학교, 극장, 박물관, 운동장은 24시간 만원이 아니다. 사용되는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이 있다. 시세에 맞지 않아 팔리지 않는 빈집과 상가들도 있다. 아직 구매자를 만나지 못한 공터도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부모들은 육

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공공 공간이나 지역 녹지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일부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사회에도 수요와 공급이 함께 충족되어야 부가가치가 창조된다. 지역은 남는 자원들을 제공하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수요의 필요를 공급이 충족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고령자를 위해 쇼핑 도우미를 자원한 젊은이는 지역에서 극장이 꼭 차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평일 오후에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영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아 준 경우에는 지역 공용 수영장 티켓을 얻을 수도 있다. 공원 미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 공터에서 무료로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자원과 수요를 연결할 수 있다. 누군가 뜻을 가지고 시작만 한다면 실현이 어렵지 않다.

지역들은 각자의 화폐로 재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석유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중동 석유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노심 초사하는 것보다 미래 에너지 안 전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아니한가?

지역 시민은 재산세나 사업세 등의 지역세나 국세를 지역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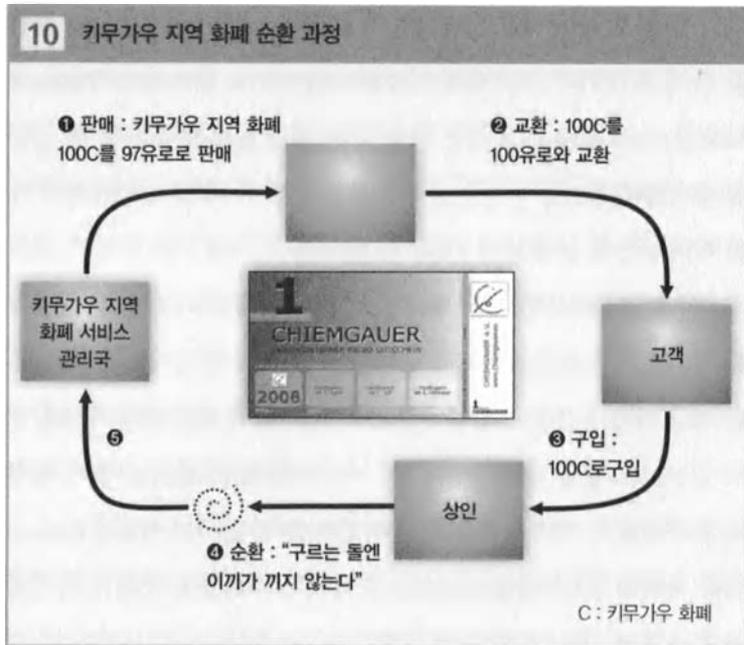
로 지불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포르알베르크나 독일의 키무가우 같은 일부 지방 자치체는 수수료나 세금 지불을 위한 지역 미디어를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역들은 각각의 화폐를 양립 가능하게 설계하여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화폐 교류가 확대되면 각 지역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알베르크에 위치한 지역 대안 화폐국(포르알베르크의 모든 지역 화폐를 관리하는)은 서로 다른 지역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화폐 환전소와 같은 교환소를 설립했다. 이 곳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 시스템 간에 대차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 화폐들은 종이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키무가우(지역 화폐의 선구지 중의 하나)는 마그네틱 전자 카드와 컴퓨터 지원 결제 옵션을 사용하여 인근 지역의 지역 화폐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 국경 주민들의 지역 화폐 사용을 촉진하였다. 영국의 브릭스톤(Brixton)이란 지역의 "전환 마을(Transition Town)"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역 화폐인 브릭스톤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보건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부족하여 지역 화폐 보급이 어렵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날 지역 화폐가 안고 있는 급한 과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지원만으로는 지역 화폐 시스템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서는 지역 화폐 관리국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수수료 같은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국은 지역 화폐를 지속하기 위한 일반 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출처: 키무가우, 크리스티안 갈레리(Christian Gelleri))

지역 화폐 시스템과 대안 화폐 모델이 확산될수록 기존 화폐 시스템은 유동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여 사용될 수 있다. 법률 개정, 사회 행동 패턴의 변화 사업, 친환경 사업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의 영역에 도움이 되

지 않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나 이차 시스템이 필요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다. 위험성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성도 높은 대규모 사업과 국제무역은 적합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기존 시스템은 대체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까지 계속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여겨질 것이다.

안티 글로벌라이저 화폐(Anti-Globalizers' Money)는 2004년 독일 주간지 「DIE ZEIT」가 다른 지역 화폐 관련 내용(지역 화폐는 세계화와 논리를 같이 한다.)을 비판했다. 지역 화폐는 세계화가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단적인 예로 유로화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로화 도입 후 유럽 통화권에서 일시적으로 투기는 억제되었고 유럽 내 환율 변동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어 무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확실적인 국제 통화나 유럽 통화가 국가나 개별 지역, 지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전 EU자금지원프로그램의 일부는 매우 잘못된 투자라고 평가된다. EU의 자금은 교외 쇼핑몰 건설을 지원하여 도심 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이와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생활 조건의 평등화와 도시화를 향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동독 지방 자치제의 자체적인 생활 수단들을 제한하였고 결국 현재 동독 지역의 자치성은 소멸되었다. 지역 화폐가 실행되면 각 지역의 자치성이 보장되어 다양한 발전

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가는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은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화폐를 사용할 때보다 쉽고 빠르게 지역 내의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화폐는 위기 상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모든 문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구조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모든 나라는 독자적인 지역 화폐 모델을 구축하고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 나는 종종 지역 화폐 실행을 위한 자문을 요청받곤 하는데 늘 슈테판 드 블르네어 Stephen de Meulenaere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말한다. 슈테판은 인도네시아 STRO의 창립자로 대안 화폐 자원의 보고인 대안 화폐 리소스 센터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를 설립한 대안 화폐 전문가이다.

새로운 개념의 대안 화폐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안 화폐들과는 다르게 아직 실행되지 않은 몇가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과 아이디어 뿐만이 아니라 화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함께 제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안 화폐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 교육 화폐 : 교육 대안 화폐를 형태로 한 독창적인 화폐 이론 모델이 있다. 이는 2004년에 베르나르 리에테르 Bernard Lietaer와 길슨 슈와츠 Gilson Schwartz가 제안한 '사베 Saber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지식'을 뜻함'라는 화폐로, 이 화폐 모델은 다양한 목적의 화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베는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2004년 브라질은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40퍼센트 이상은 생산 가능 연령보다 어린 15세 미만이었고 모두들 브라질의 학교와 대학을 심각한 문제로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시스템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하여 모바일 통신 사업 민영화시 휴대전화 요금에 1퍼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였다. 브라질 교육부는

2004년 중반까지 사업 진행에 가능한 10억(브라질 화폐 30억 헤알real에 해당)의 전화 요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당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의사 결정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베르나르 리에테르와 그의 동료 길 슌 슈와츠는 교육 화폐를 국가 화폐의 일환으로 삼아 액면가로 평가하고 위조 불가능한 신용 전표의 형태로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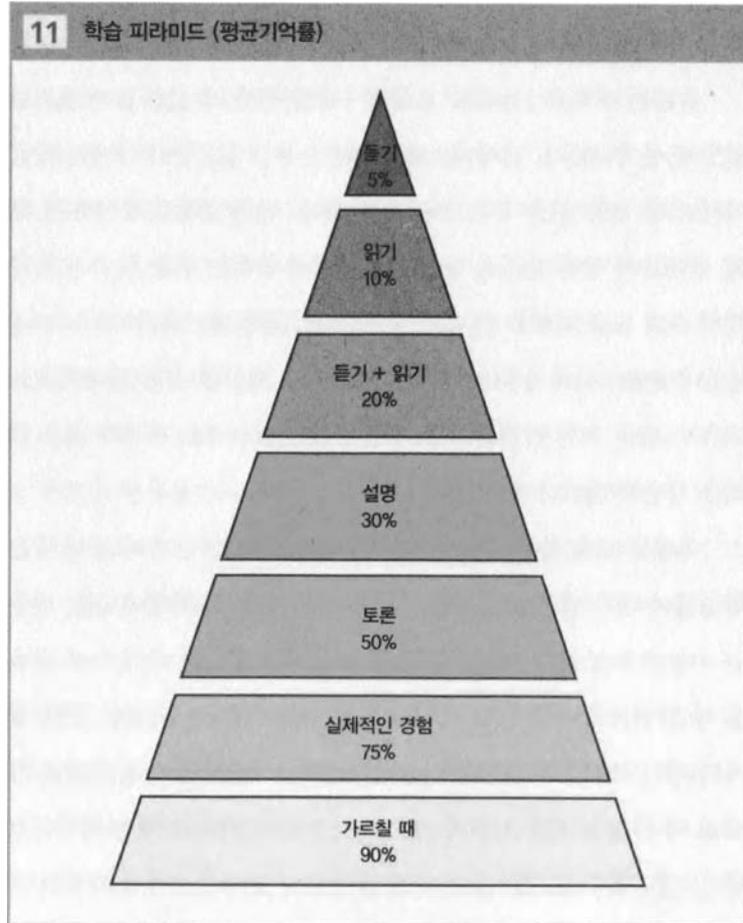
교육 화폐 모델의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신용 전표 발행을 관리 통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학교들에게 전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일차적으로 하급반 학생들에게 이 신용 전표를 나누어 주었다. 수업은 학생들의 평균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수업에서 채워지지 않은 취약한 부분을 학생들끼리 일종의 과외 수업으로 따로 보충하였다. 하급반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급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신용 전표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러한 과외 수업을 통하여 사베는 하급반 학생들로부터 학교를 곧 졸업할 최상급반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첫해의 학비로 사베를 사용할 수 있었다. 대학들은 사베를 다시 브라질 국가 화폐인 헤알로 교환할 수 있었는데 2대 1의 비율(1헤알에 2사베)로 교육부에서 거래하였다. 교육부는 대학 외에는 아무도 교환권을 지니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학교는 결원이 생기면 한 학생당 발생 비용의 약 10퍼센트를 담당하였

는데 이 사업을 통해 결원이 줄어 오히려 4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지역 주 역시 학생 결원 수의 감소로 비용의 절반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얻은 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점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베는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4개월 후에 그 값의 20퍼센트를 잃도록 설계되었다. 리에테르와 슈와츠는 이 기간 동안 사베는 평균 다섯 차례 순환될 것이라고 어림잡았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회원 대학들의 결원 감소로 인한 50퍼센트에 달하는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 주의 교육 혜택은 열 배나 증가한다. '대학 접근률 두 배 ×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된) 사베의 다섯 차례 순환'이 그 계산법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기금 10억 달러는 최소 100억 달러(300억 헤알) 가치의 교육 혜택을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교육 화폐의 도입은 나라 전체에 이롭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학업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경제, 정치, 문화에서 두투두루 훨씬 나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교육 화폐는 다양한 무료 강좌와 개인 교습들의 개설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특정 주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더욱 오래 기억한다고 한다. 실제로 가르치는 동안에 관련 정보의 90퍼센트까지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읽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

을 때는 겨우 5퍼센트만 기억한다고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사베 화폐는 현재보다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베타(Bethel), 메인(Maine))

젊은 관리자들에게 교육 화폐에 대한 강연을 마쳤을 때의 일이다. 규모가 상당한 산업회사에서 온 두 명의 인사부 관리자들이 다가와 말했다. “회사 내부 연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화폐 모델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폰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회사 내 연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쿠폰을 순환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부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화폐와 일대일의 가치로 교환하여 외부로부터 더 많은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면 회사 내부 연수 프로그램 혜택이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증진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직관은 정확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아이디어를 실행했는지에 대하여는 듣지 못했다. 브라질의 룰라(Lula da Silva) 정부는 내부 정치 갈등과 맞물려 사베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했다. 간단하면서도 이익이 보장되는 모델을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적어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중은 이 모델이 무엇인지 또 혜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한다. 우리에게 깊숙이 뿌리박은 화폐 제도를 변화시킬 만한 필요 충족의 사람 수를 동원하려면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 경우 대안 화폐 사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 건강 화폐 :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 비용은 예외 없이 상승하고 있다. 베르나르 리에테르와 정신과 의사인 슈테판 브룬huber(Stefan Brunnhuber) 박사는 의료 분야가 발전하여 큰 규모의 독립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발견하고 관련 화폐를 제안했다. 보수경제학파도 의료 시장의 가치가 국가 산업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실제로 의료 비용은 시장 전체의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메커니즘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데, 아플 때에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고 건강할 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병을 앓고 치료할 때에만 보험금이 지불된다. 그러므로 의료 시장에서 더 많은 질병은 곧 더 높은 성장을 의미하고 의료 시스템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 보상을 해주는 원리로 움직인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시장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더 건강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방 치료 메커니즘은 의료 시장을 건강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안 화폐로써 건강 화폐의 도입은 홈케어나 조기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 차원의 의료 활동을 향상시키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건강 교육이나 운동 교실에 참가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 증진 활동에 참가하거나 가정에서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건강 보너스를 제공받는데 이를 의료보험회사에 지불

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건강에 유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도 건강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 화폐 협회가 회원들에게 지정한 네 가지의 보너스 사용 권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의 감소
2. 광범위한 보험 서비스(침, 동종요법 등)
3. 타인에게 양도
4.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의료 상품과 서비스 구매

지역 내 의료 상품 공급자는 소득으로 얻은 건강 보너스를 의료 보험재단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물론 보너스는 일반 회원들이 현금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과학적 검토에 따르면 예방 의료는 장기적으로 의료보험회사의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 화폐는 참여 당사자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셈이다. 일반 회원들은 건강 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접적(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이고도 간접적(의료 비용 절약)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본을 절약하여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독일 정부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예방 치료 체계가 제대로 구현되면 잠재적으로 약 300억 유로를 절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 보너스 프로그램은 미래를 앞서가는 소수의 몇몇 보험회사들에 의해 도입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지배적인 화폐 제도 안에 통합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려는 예방 의료 패러다임은 제약 업계에게조차 도움이 된다. 건강관리와 예방은 개인과 공공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며, 시장, 공급자,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회사들은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식에 보상을 하는 건강 화폐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 글로벌 기준 화폐 : 환율 변동은 회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주저하는 큰 무역 장벽 중 하나이다. 또한 환율 변동 때문에 이른바 대응 무역(대기업 간에 상품을 직접 교류하는) 세계 전체 무역의 30퍼센트를 차지하기도 한다. 가령 대응 무역을 하는 음료 생산 회사는 레모네이드 농축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무블 대신 보드카로 대가를 지불받는다.

베르나르 리에테르는 직접 교류에서 발생하는 단점과 제약을 없애기 위하여 1998년에 '테라_{TCM}'라는 글로벌 기준 화폐를 소개했다. 기존 글로벌 화폐의 장점에 안정성의 개념을 더한 화폐였다. 리에테르는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연합을 통해 테라를 발권하자고 제안했

다. 테라의 가치는 금을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매겼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제상품선물거래소에서 교역되는 원자재들을 표준화한 바스켓으로 측정된다. 테라의 바스켓은 필수 원자재들을 선별한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기름 10분의 1배럴, 밀 8 갤런, 구리 2파운드, 순금 100분의 1온스를 통합하여 구성될 수 있다. 테라의 상품들은 창고나 선적 컨테이너에 정박되고 테라 소유자들은 초과 정박료 형식으로 보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테라 국제 화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장점을 지닌다.

1. 테라 시스템은 비경기 순환적으로 작동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번성할 때 원자재 수요는 높아지고 테라는 현금화된다. 그 결과 유통되는 테라의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시장에 제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몹시 위축될 경우에는 테라 바스켓에 원자재가 과잉 축적되고 이는 테라의 가용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경기가 침체되어도 시장에 돈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순환될 수 있다.
2. 테라 보유자들이 테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종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 디머리지 수수료 항목이 더해진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테라는 국제적으로 무역이 가능한 바스켓 속의 원자재들을

100퍼센트 반영하여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기존 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테라의 효과는 전 세계적인 부가가치 사슬을 일으키는 원천이다. 테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테라연합은 바스켓 안의 제품군들, 보관 비용, 다른 화폐와의 교환 거래를 감독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정부 및 다국적 기업은 대응 무역을 대체할 만한 매우 유연하고도 지속 가능한 국제 대안 화폐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

테라는 여러 형태의 무역 장벽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교역되는 물품들로 바스켓의 가치가 결정되어 비싼 연계 매매를 제거하는 안정적 화폐(화폐 변동에 대한 보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라는 디머리지 시스템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기 불황일 때에도 테라 연합의 회원들은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 그저 돈을 쥐고 있다가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조립을 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테라가 정채하는 동안에도 나무는 성장하고, 가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이익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라는 국제무역 시장에서 각종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도 한다.

: 탄소 화폐 : 회사와 개인 가구는 모두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한다. 이는 에너지 사업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은 인식 때문인데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탄소 기반 화폐이다. 탄소 화폐는 투자 비용을 줄여 공공 및 민간 예산에 추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루드비히 슈스터(Ludwig Schuster)는 2009년 그의 연구를 통하여 탄소 배출권에 기반한 병렬 화폐를 제안하였다. 그는 탄소 화폐가 탄소 배출권을 골자로 할 경우 개별 가정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각 개인이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 사용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받게 되는 침을 전제한다면 배출권은 보편적인 소득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소 화폐가 도입되면 전 세계인은 적어도 에너지 배출량에 관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이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이 되면 빈곤층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 분배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탄소 화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 내 시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국가가 모인 세계 시장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가 서유럽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의 일부만을 생성했다고 하자. 북아프리카는 사용하지 않은 배출량을 서유럽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자원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탄소 화폐는 소득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생활 조건을 균등화하고 간접적으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다.

탄소 화폐가 테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금본위제도처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쓸 수 있는 권리와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적 제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렇게 탄소 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화폐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탄소 화폐의 주요 목적이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미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1톤당 추정되는 연간 비용은 85달러에 달하고, 지구상 70억의 인구가 탄소 화폐 시스템을 당장 도입한다면 연간 배출권은 이미 일인당 75달러에서 320달러에 이른다.

무엇보다 탄소 병렬 화폐가 도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 화폐가 신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회 빈부 계층간의 지독한 불균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 제도적 속박

현재 금융 시스템은 이자 메커니즘을 기틀로 단단한 요새를 쌓아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들어갈 틈을 막아버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 어권 국가마저도 대안 화폐 도입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뵘글Wörgl과 슈바넨키르헨Schwanenkirchen이라고 불리는 첫번째 대안 화폐 모델이 법원의 입법 조치에 의해 폐지된 후 더욱 심해졌다.

그러므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야만 한다. 독일 지역 화폐 실행 전문가인 후고 고틀슬리히Hugo Gottschlich는 법이 화폐 자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지역 대안 화폐가 법적인 '돈'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역 대안 화폐는 국가 화폐와 다른 형태를 지니고 국가 화폐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제한 수준이 낮아져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 화폐 스스로도 국가 화폐와 한 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화폐 단위 명칭도 공식적인 법화와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독일연방은행은 지역 화폐가 자국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한 지역 화폐의 사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독일 지역 화폐Regio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독일연방은행의 반응이 달라지

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닌데 대규모 은행이 이미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수용하고 보급하려면 사회적 약속, 미래를 앞서가는 생각,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의사 결정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안 화폐는 가치를 믿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만 보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화폐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 역시 제시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화폐에 대한 연구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가져올 미래를 향한 기회의 짐을 손에 쥐고 있다. 기회의 칼날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대안 화폐의 긍정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방코 팔마스Banco Palmas와 같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역 공동체 은행 간의 협력을 통하여 가난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점은 많은 깨달음을 준다.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공동체 발전을 이룬 교과서 격이 되는 은행이 있다. 이는 브라질 포르탈레자Fortaleza 근방의 콘훈토 파우메이라스Conjunto Palmeiras에서 1998년에 설립된 은행이다. 1997년 이 지역의 80퍼센트 주민 구매는 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졌다. 화폐 실행 후 공동체

내 구매율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구매의 93퍼센트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내 구매 활성화는 1,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제 브라질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역 화폐 확산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은행 총재는 초기에 방코 팔마스 도입을 반대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브라질 지역들은 지역 화폐와 결합한 소액 신용Microcredit 시스템을 통하여 자치적으로 부를 유지하고 수송비나 '푸드 마일'을 감소시키며 친환경적인 지역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화폐는 지역과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가가 대안 화폐를 발행하는 '지역 개발 은행'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경제 위기는 금융회사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돈과 금융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돈을 점령하여야 한다.

3부

OCCUPY MONEY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으로 수익 기반의 전환



대안 화폐가 복리를 바탕으로 성장에 집착하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나는 종종 무이자 화폐 시스템을 동종 요법 치료에 비유하곤 한다. 대안 화폐 도입 초기에는 무익하던 모든 것들이 수익성을 갖게 되어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대안 화폐는 생태학적인 활동 증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화폐 모델이 올바르게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진실”이 반영된 환경 비용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견해에 그들의 뜻을 함께하고 있다.

무이자 금융 시스템은 마치 동종 요법처럼 초기에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순환하는 화폐가 최적의 양에 도달하면 성장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이다. 성장을 멈추지 않아 결국 스스로 파괴되는 기존 금융 화폐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 기준이 되는 이자가 디머리지 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폐지되면 화폐 투기자들은 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토지와 부동산으로 돌려 또 다른 투기 양상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땅은 그 땅을 밟는 우리 모두에게 속하므로 땅을 임대하는 것이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여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니더작센 주(Lower Saxony)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거품이 한 차례 더 붕괴하기 전에 투자금을 빼 넣어줄 만한 유형 자산을 물색하였고 결과로 니더작센 인근 농지 시세는 최근

에 세 배나 증가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고 농민들은 빌려 쓰던 농작지와 목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요 식품에도 투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올라 개발도상국에서 기아 문제는 가중되었다.

투쟁적인 사회 혁명이나 금융 독재를 방지하려면 사회 모든 분야는 열린 토론 문화를 형성해야만 한다. 금융 시스템에서도 수십 년 동안 화폐 개혁을 외쳐온 시민 단체, 학계의 전문가, 정치가, 은행가 등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적인 금융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회 모든 집단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대안 화폐 시스템이 널리 보급될지라도 세계적인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과학 분야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진보해왔다. 유일하게 경제학만이 이를 등한시하여 그 근간인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뒷전에 두었다. 화폐는 아직도 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배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은 화폐 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기존 화폐에 무조건적 찬사를 보내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금융 시스템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스스로가 불완전성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의무가 있다. 어려운 경제 용어로 꾸며진 기존의 규칙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로 대체하여야만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화폐 자산과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에서 수직에 가까운 부분까지 이르렀다.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은 자연계에서 질병 곡선과 같은 모양을 갖는데, 수직 모양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생물은 곧 죽음을 맞이한다. 금융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때에 성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기관에 위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화폐와 채무의 무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경제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평화로운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쥐고 있는 힘과 권력을 분산할 만한 작은 조직 단위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한다. 작은 구조일 때만이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세계화라는 큰 틀 아래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보를 달리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그룹의 글로벌 부가 가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의 진행은 앞으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세계화 속에서 획일적으로 글로벌 모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전략인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유의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계만 유동성이 전혀 없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화폐를 제어하고 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 요한 발터(Johann Walter)는 미래 금융 경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새로운 시스템의 주요 질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시 경제 원리를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거시 경제를 지표로 삼으면 화폐와 채무의 무제한적인 성장, 불안정한 화폐 공급량, 사회 격차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 질서에 관해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아직까지 중앙은행만이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 경기 대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금융 구조의 재편에 관한 열린 아이디어가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화폐

금융 업계는 변화를 제지하고 현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브뤼셀에서 사용되는 금융 로비 자금은 하루에 300만 유로에 이르고 로비스트들은 워싱턴 각 의회 대표자들을 담당하기 위해 다섯 개의 거처를 구축했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항하는 월가 점령 운동의 선구자와 추종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운동은 오랫동안 금융 화폐 시스템의 현안이었던 개혁의 불씨를 밝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은행이 새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다. 마케팅 비용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높은 투자 수익률(ROI)을 보장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졌다. 이는 모든 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만약 은행들이 저축 계좌에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면 새롭게 그리는 시스템, 즉 대출 이자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은행 고객이 저축 금리로 얻는 이익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은 재정적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이 무이자 대출 상품과 이자를 부과하는 대출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을까? 만약에 고객들이 예금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릴 경우 은행은 무이자 대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객들의 인식 변화이다. 금리를 포기하는 스스로의 선택이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혜택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초기에 여러 가지 실책을 겪을 수 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늘 그러하다. 얼마 전 범세계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청년 운동이 그들의 주요 개혁 의제에 금융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였다. 나는 그들이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현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의 장점

지금까지 이 책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안 화폐 시스템은 다양한 원리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안되어 현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빌어 나는 지속 가능한 화폐의 장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종이 이익' 대신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이익을 만들어 사회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화폐의 근본적인 장점이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집중된다.

사베와 같은 대안 화폐를 보건데 지속 화폐는 세계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이자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수수료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순환하는 한 그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성장은 금융자산도 부채도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고안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난해한 기존의 화폐와 대조적이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력의 도구로 화폐가 사용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기존 화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막아 사회 공동체를 침식했다면, 지속 가능한 화폐의 근본적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

새로운 화폐는 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유동적이다. 반면 기존 시스템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중앙은행이 채무의 증가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실물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화폐량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소유권이 아닌 성과에 기초한다.

대안 화폐 시스템에서 수익의 기반은 자신이 소유한 부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이다. 대조적으로 현재 일반은행은 대출 금액에 합당하는 담보를 보증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지속 가능한 화폐는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제한으로써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두 배로 향상시킨다. 물론 나머지 10퍼센트 구성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에 그들의 돈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화폐는 우리에게 지역 공동체와 환경, 후손에게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화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자.

“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감사의 글 :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 더할 나위 없는 번역을 해준 필립 비어드 Philip Beard,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글을 집필하라고 독려하며 수많은 전문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준 슈테파니 에렌슈벤트너 Stephanie Ehrenschwendner,
- 머리말을 기꺼이 감수해준 찰스 아이젠스타인 Charles Eisenstein,
-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다듬어 준 화폐 전문가 에바 마리아 후베르트 Eva Maria Hulzer,

- 날카로운 의견을 더해준 루드비히 슈스터 Ludwig Schuster,
- 30년 전 화폐와 이자를 둘러싼 근본적인 의문에 내 눈을 뜨게 도와준 헬무트 크로이츠 Helmut Creutz,
- JAK 시스템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준 페르 임그레 Per Imgre, 에바 스테니우스 Eva Stenius, 오스카 쉘베르그 Oscar Kjellberg,
- WIR 은행에 관한 사소한 질문에도 답을 준 에르베 뒤부아 Herve Dubois,
- 수십 년 연구를 바탕으로 대안 화폐 법률을 자문해준 전문가 후고 고트슐리히 Hugo Gotschlich,
- 대안 화폐의 아버지 베르나르 리에테르 Bernard Lietzer,
- 정신적으로도 또한 실직적으로도 늘 힘이 되는 남편 데클렌 케네디 Declan Kennedy,
- 꼼꼼하게 교정을 봐 준 나의 딸 안티야 케네디 Antja Kennedy,
- 뉴소사이어티 출판사 New Society Publishers 팀원들, 특별히 잉그리드 비트호에트 Ingrid Witvoet와 롭 샌더스 Rob Sanders,
- 지역 화폐 Regiogeld 초기 멤버들, 크리스티안 갈레리 Christian Gelleri, 프란츠 갈러 Franz Galler, 게르노트 요훴뮐러 Gernot Jochum-Müller, 프랑크 안스키 Frank Jansky, 롤프 메르텐스 Rolf Mertens, 롤프 실링 Rolf Schilling. 그리고 지역 화폐의 이상을 현실로 끌어낸 모든 주역들,
- 도표와 그래프를 그려 지역 화폐 이야기를 쉽게 풀어 준 롤란트 슈피놀라 Roland Spinola.

- 지금도 어디선가 지구촌 변화 운동 Global Change Now과, 화폐 점령 운동 Occupy Money에 쉬지 않고 헌신을 쏟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젊은이들, 제바스티안 그라프 Sebastian Graf와 내 손녀 노라 오벌랜더 Nora Oberlander.

이러한 운동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열정이 모여 대안 화폐가 현실에서 뿌리내리기를 열망해본다.



색인

㉠

건강 화폐 118~120
 교육 화폐 113~117
 국제결제은행 58
 국제통화기금 22
 국제호혜무역협회 97
 글로벌 기준 화폐 120
 금융 로비 137
 기독교의 주화 정책 85
 길슨 슈와츠 113

㉡

나이지리아 43
 니코 페히 62

㉢

대안 화폐 93~127
 대응 무역 120, 122
 독일 마르크 28, 56
 디머리지 17, 67, 79~83, 85, 87, 121,
 122, 132
 WIR 97~99

㉣

라틴아메리카 39, 48
 레츠 93, 94
 로트하르 슈패트 96
 루드비히 슈스터 123
 리스크 프리미엄 35, 70, 73, 75, 77
 Regio 125

㉤

마이클 린턴 93
 무기명 채권 94
 무이자 대출 68, 71, 76, 85, 137, 138
 미뉴토 94
 민영화 105, 113

㉥

바터 시스템 96, 97, 99
 방코 팔마스(Banco Palmas) 126, 127
 베르나르 리에테르 113, 114, 118, 120
 벨기에, RES 97
 병렬 화폐 123, 124
 복리 이자 23, 27, 38, 41, 43, 49, 83
 브라질 113, 114, 117, 126, 127
 브릭스톤 109

㉦

사베 화폐 116
 샤리아 77, 84, 86, 87
 세대 조약 96
 숨겨진 이자 52, 141
 슈테판 드 물르네어 112
 슈테판 브룬후버 118
 스웨덴 17, 35, 68, 69, 70, 72, 73, 74,

76, 77

스위스 91, 97~99
 시간 은행 19, 95, 96

㉧

에바 마리아 후베르트 87
 오바산조 43
 요한 발터 136
 월가 점령 운동 18, 137
 유대교 84
 유동성 프리미엄 35, 70
 윤리적 투자 91
 은행 행정 비용 70
 이슬람 76, 77, 84, 86
 이자의 구성 34
 인플레이션 17, 35, 42, 56, 57, 70, 73,
 80, 82, 87, 106, 140

㉨

작은 조직 135
 저축 포인트 71, 72, 74~76
 조합 은행 69
 중세 27, 84~86
 지속 가능한 화폐 139~141
 지역 화폐 19, 86, 93, 100~112,

125-127

지역화 18, 105, 136

질적(인) 성장 41, 46

GLS 은행 92

JAK은행 16, 17, 35, 67-81

㉠

찰스 아이젠스타인 20, 62

채무 성장 46

㉡

콘스탄틴 키르크 94

키무가우 104, 109, 110

㉢

타임 크레딧 94

탄소 배출 123, 124

탄소 화폐 123, 124

테라 120-122, 124

토지 소유권 132

투명한 은행 91

㉣

파생 상품 59

포르알베르크 95, 107

폭스바겐 그룹의 글로벌 부가 가치 136

㉤

하이퍼 인플레이션 87, 106

한쪽 면만 새겨진 특정 동전 85

헤르베르트 헨츨러 96

헤지펀드 48

현금흐름할인 42

후고 고트술리히 125

후레이-키푸 시스템 95

화폐를 점령하라!

빛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



『화폐를 점령하라』는 나의 돈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배불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화폐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고 있다.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가 우리 주머니에서 어떻게 매일 새어나가고 있는지, 돈과 절대 결별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불평등한 화폐 시스템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은 없는지에 대해 세계경제학 박사이자 국제화폐전문가인 마르그리트 교수는 쉽고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학 원론의 첫 장도 읽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마르그리트 교수는 30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갇아도 갇아도 끝없이 물려오는 빛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으로, 현재의 사채-채무-화폐 시스템을 대체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경제의 봄을 피우기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값 15,000원



ISBN 978-89-6513-243-1